

우리문화



인터뷰 | 유상옥 코리아나 화장품 대표

특집 | 문화원 가족의 송년 이야기

문화논단 | DMZ의 관광활성화 방안

겨울사냥 | 수고한 당신, 12월 31일 겨울바다로 떠나라

2005 - 11.12

VOL. 179

전국문화원연합회



겨울나무

한 해 끝자락에 서 있는 나목(裸木). 잎새 다 떨구고 새 동지가 되었네.

전국향토문화연구자 큰잔치 열려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가 주관하는 '2005년도 전국향토문화연구자 큰잔치'가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제20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을 겸한 이 행사에서 황의호(52·왼쪽에서 여섯번째) 충남 대천여고 교감이 대상인 국무총리상

을 수상했다. 황씨는 논문 '보령 성동리 중보수리계'에서 냇물을 가둬 논에 물을 대는 전통수리시설인 보(洑)를 우리 조상이 어떻게 관리 운영했는지에 관한 연구와 웅천천 지역에 관한 일제 시대의 자료를 발굴해 수리시설의 변천사를 다뤘다. <관련기사 67면>

지방문화원 '기획과정' 연수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대전 유성경하 온천호텔과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4회에 걸쳐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기획과정 연수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66면>

국회서 '국민의 시 낭송의 밤' 개최

국회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11월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을 개최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 행사는 여야 국

회의원들과 원로 시인들이 모여 애송시를 낭송하며 시심으로 하나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의원들과 문화원장, 김남조, 신달자, 황금찬 시인들이 참석, 각자의 애송시를 읊었다. 또 제3회 전국문화가족 창작시공모전에서 '기억의 춤'으로 대상을 수상한 정금재(44, 황성음북천리)씨의 낭송도 있었다. <관련기사 34면>



강릉단오제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강릉단오제'가 11월 25일 '유네스코 세계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됐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각국에서 신청한 75종의 문화유산 중 강릉단오제를 비롯한 43종을 선정하고 선포식과 함께 인증서를 수여했다. 강릉단오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강릉지역의 관(官)·민(民)·상(商)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축제이다. <관련기사 65면>

지방문화원 중심 실버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향토문화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2005년도 노인참여형 소득창출 문화예술 시범사업'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통합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시행되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해 지방문화원 중심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실버문화를 조성하

기 위한 '실버세대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특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10개 지방문화원과 기타 문화관련단체 2곳의 실버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64면>

우리문화 구독문의 02)704-2311



송년특집

문화원 가족의 송년 이야기

16

인터뷰

“미래가 궁금하거든
옛 것을 배우라” 4

문화탐방

‘국립중앙박물관’
꼼꼼히 둘러보기 44

문화마당 詩와의 만남을 통한 가을

국민의 시 낭송의 밤 34

겨울사냥

12월 31일,
겨울바다로 떠나라 78

Contents

November · December 2005 _ Vol 179

| | | |
|----|-----------|-------------------------|
| 4 | 인터뷰 | “미래가 궁금하거든 옛 것을 배우라” |
| 8 | 문화컬럼 | 지방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길은? |
| 14 | 화보 | 바닷가 마을 |
| 16 | 송년특집 | 문화원 가족의 송년 이야기 |
| 28 | 문화원 홍보 | 문화원 홍보 이렇게 하라 |
| 33 | 시 한편 | 중년(中年) |
| 34 | 문화마당 | 국민의 시 낭송의 밤 |
| 36 | 문화논단 | DMZ의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활성화 방안 |
| 44 | 문화탐방 | ‘국립중앙박물관’ 꼼꼼히 둘러보기 |
| 52 | 지역따라 노래따라 | 울고 넘는 박달재의 ‘제천’ |
| 56 | 문화정보 | 전국향토문화공모전 |
| 64 | 문화뉴스 | 지방문화원 중심 실버프로젝트 추진 등 |
| 74 | 사랑방 | 잊혀져 가는 옛집을 찾아서 |
| 78 | 겨울사냥 | 12월 31일, 겨울바다로 떠나라 |
| 82 | 책꽂이 | 구수한 큰 맛 등 |
| 86 | 다가오는 새해 | 丙戌年(병술년), 개 이야기 |
| 88 | 성과 로맨스 | “유감등 이야기” |

Coréana Cosm Mus

Masterpieces - Selections of
Dr. Yu Sang Ok

민속예술품 수집 36년

“미래가 궁금하거든
옛것을 배우라”

화장품 박물관 운영하는 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만일 압구정동에서 약속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 소일할 장소를 찾는다면 ‘스페이스C’ 를 권하고 싶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내려 KT전화국 방향으로 10미터 쯤 걸어가다 보면 바로 옆에 영화관이 나온다. 이 영화관을 관통하는 길을 따라 주욱 걸어나가면 오른쪽에 스페이스C 건물이 보인다. 벽에 쓰인 ‘Coreana art & culture complex’ 라는 문구가 코리아나화장품의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화장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코리아나화장품 창업주의 오롯한 의지가 배어 있다. 이같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색감을 느끼게 하는 문화 공간을 압구정동에서 만나는 것은 모처럼 화장을 곱게 하고 길을 나선 어머니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반가웠다. 약속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 이 문화공간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인 7층으로 올라갔다. 방 한가운데 누군가 반듯이 서서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화폭을 넘기고 있었다.

송파 유상옥 회장(72). 인터뷰를 하러 온 기자 일행을 보고 건넌 그의 첫 인사말은 이랬다.

“중국 판화 보실래요”

유 회장은 방금 자신이 보던 대형 화첩을 한 장 한장 다시 기자 일행 앞에서 넘겨가며 보여주고서야 자리에 앉았다. 한 때 화장품 업계의 다크호스로 비즈니스에서 주목받았던 기업가라고 하기에는 믿지 못할 만큼 매우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유회장은 55세의 늦깎이 나이로 책상 두개, 전화 두대로 코리아나화장품을 창업했다. 그런 후 불과 5년 만에 1,3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려 업계 3위 회사로 등극하는 등 화장품 업계에서의 명성을 날렸었다.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지금은 그가 원하던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본다.

그는 오래전부터 문화예술로 사회공헌을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 박물관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별명은 ‘예술품 수집광’이다.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1969년 부터 그림과 민속품 수집을 시작해 36년 동안 모은 것만 5,000여 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 유 회장에게 언제 수집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은 짧았다.

“다른 사람이 놀 때.”

유물 수집도 부지런해야 많이 모으는 거란다.

지금까지 수집한 유물은 대략 몇 점이나 되나요?

“수천점이죠(웃음). 청자 기름병만 보더라도 모양이 다르고 문양이 다르니까요. 또 모양과 문양이 같은 기름병이라도 색깔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모자합의 경우 큰 합 속에 여러 개의 작은 합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더라도 값이 싸서 하나 더 사두기도 하고 반대로 값이 비싸도 희귀하다는 이유로 사 두기도 한다. 최근에는 춘향도를 수집했다. 이당 김은호 선생이 그린 남원 광한루 춘향사당의 그림과 같은 것인데 매우 뿌듯한 표정이었다. 새해 회사 캘린더의 표지로 실었다.

최근에 ‘문화를 경영한다’는 네번째 수필집을 내셨는데 왜 ‘문화로’가 아닌 ‘문화를’인가요?

“문화라고 하면 으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떠올리는 데 기업 그 자체도 하나의 문화이죠. 더욱이 우리는 화장품 회사이다 보니 화장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존재 가치가 향상되기도 하고 홍보가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의 화장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화장은 남성들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잖아요. 옛날 여성들이 어떻게 화장을 했느냐, 어떤 도구를 이용했느냐, 어떤 생활을

했느냐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만들어 판다는 것이 아니라 옛 어른들이 어떻게 화장문화를 향유했을까 생각하면서 현대의 화장문화가 가야할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옛 여성들의 화장문화와 현대 여성들의 화장문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구려 벽화에 보면 입술을 새빨강게 하고 눈썹을 검게 하고 불연지를 붉게 짙은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습이 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도 화장으로 미화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제 신라 유적에도 기름병이 출토되는데 이는 우리가 어릴 때 보아왔던 동백기름이나

아주까리 기름과 같은 화장 기름을 사용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기름병 역시 문양을 만들거나 장식을 달아 예쁘게 모양을 낸 게 눈에 띕니다.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홍화이파리나 숯가루, 솔그름, 녹두등을 화장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천연화장품’ 이죠. 이것에 착안해 현대에 와서 자연소재를 활용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 공헌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면 불우 돕기나 복지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니뭐니 해도 기업을 잘 운영하는게 제1의 사회적 공헌이에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어 GDP(국내총생산)를 올리고 가계 수입을 늘려주고 세원을 증가시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게 사회공헌이죠. 삼성의 고이병철 회장은 60년대 먹고 살기 힘든 시대 부터 유물을 수집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문화재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국내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호암 미술관을 만드는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사회 공헌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쌍벽을 이뤘던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은 도 별로 아산병원을 만드는 등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 공헌을 한 것이죠.”

남들 같으면 홍보 예산을 줄이지 못해 안달하던 시대에 오히려 스페이스C를 세우는 등 문화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 코리아나화장품 입장에서 볼 경우 문화공헌의 수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업이 경영을 잘하는 것을 기본적인 사



유상욱 회장이 화장품 박물관의 전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이름하고 같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천안에 있어 민병달 전 문화원장하고도 알구요. 문화원이 예산 부족 등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공헌으로 볼 때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해 문화를 매개체로 사회공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수지로 따져 볼 수는 없지만 문화로 사회에 공헌하면 사회는 우리에게 대한 호감을 갖게 되고 신뢰도가 높아져 상품 매출이 올라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부가효과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지요.”

유회장은 자신의 고향인 청양군 대치면 상감리 가파마을과도 몇해전 1차1촌관계를 맺어 농산물 사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버스 정류장을 지어주어 마을주민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코리아나 직원들도 이 마을을 가족들과 함께 찾아 모내기를 하거나 전통염색을 배우곤 한다. 효부상도 제정해 매년 수여해 오고 있는데 벌써 20여년째란다. 유 회장이 창업전 부터 실천해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건물 입구에 보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요. 사회가 발전하고 세계화될 수록 인간 본연으로 돌아가 기본이 뭐냐를 따져 봐야 합니다. 조선조 5백년을 끌어올 수 있었던 바탕이 인의예지신, 삼강오륜과 같은 전통문화인데 대학 강의때 이런 얘기하면 케케묵은 얘기로 들나 봐요. 문화원이야말로 온고이지신을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옛날의 고우문화를 보급도 하면서 현대의 첨단문화도 소개하며 지방문화 창달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가는 전통문화 지킴이로 계속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려 봅니다.”

이전에 문화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요?

“제 고향인 청양의 문화원 초대 원장이 한상옥씨로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사진 _ 김석화 | 프린랜서 사진작가

스페이스C는 어떤 곳?

스페이스C는 2003년 11월에 세워졌다. 이제 두돌이 갓 지났다. 7층 규모인 이 건물의 로비에 들어서면 갤러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대형 미술품을 제작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5층과 6층에는 화장에 관한 각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이 바로 화장품박물관으로 화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지하에는 매회 테마를 달리하며 전시회가 열린다. 지금까지 모두 11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맨 처음에는 백남준 작품전을 개최했고 이어 박생광, 자민전, 풍속화, 글씨전등을 열었다. 그리고 간간이 이음 등의 현대작가 작품전을 개최한다. 얼마전에는 미인도를 서울을 비롯 부산과 대구, 광주 등지에서 전시하기도 했었다. 인터뷰를 갔을 때는 소나무를 테마로 유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지방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길은?

I. 첫머리에

“지방분권시대의 지방문화원의 역할 - 주5일제를 대비한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주제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문화의 중심이 집중에서 분산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수용자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차츰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과연 전국 220여개나 되는 지방문화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논의와 방법적 모색이 있을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시도와 실행이 뒷따라야 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근본적으로 지방문화원의 발전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 향수권 또한 해결될 것이다.

이번에 제시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발전방안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러나 꼭 시행할 만한 방안을 사례예시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사례예시

문제의 해결방안은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서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최근에 눈에 띄는 다음의 몇 가지 사례예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한 ‘2004년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민대상 생활친화적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업장 중 하나가 바로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이다.

사례1.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

■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 개요



• 추억의 박물관 내부 전시모습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1리
- 1997년 7월 <정선군 폐교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현재의 위치인 정선군 신동읍 방제 1리의 매화분교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추억의 박물관 규모 : 작은 교실정도의 크기로 교실로 사용되었던 장소와 복도에 빼곡히 전시되어 있으며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근·현대사 자료 박물관임
- 2004년 문화관광부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정선아리랑학교에 다목적 문화공간이 조성되면서 개관하는 추억의 박물관은 기획전시 중심의 박물관으로 정선아리랑학교 진용선 소장

이 보유한 4천여점의 근현대사 자료를 계절별로 만나볼 수 있음

- 2005년 1월 현재 추억의 박물관에는 민요자료 1,125점, 고문서·고서 1,332점, 교육자료 2,620점, 근현대사자료 2,632점, 광업자료 153점, 서화 106점 등 11,253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가보고 싶은 박물관 3위

- 추억의 박물관은 지난 2월 28일 개관 이후 현재 약 2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감

- 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을 비롯해 이번에 선정해 순위로 매긴 결과는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이 최고로 손꼽은 300여 개의 여행지’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를 찾아라』(랜덤하우스중앙 刊)라는 책으로도 최근에 발간되어 인기를 끌고 있음

사례 2.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 2000년 문화관광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 개막에 맞춰 출간된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은 모두 6권(4×6배판)으로 돼 있으며 총 26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임

- 전국 232개 구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 별로 역사 문화 지리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21세기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표방함

- 이 책의 장점은 전국 211개 지방문화원 관계자와 지역의 대학교수, 향토사 전공자 등 지

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고를 직접 집필,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임

- 특히 일반 관광안내서와는 달리 시 군 구의 인구 면적 등 지역 현황, 역사적 인물, 문화유적, 구전설화, 별미음식, 토산품과 특산품, 문화예술단체와 예술행사, 지역출신 예술인 등을 자세히 포함시켰다. 지도와 함께 10여장의 사진도 실었음

III. 지방문화원 현황

문화원의 발전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223개원에 이르는 문화원은 1962년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78곳의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출범, 전국 최대의 문화단체로 성장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방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은 1994년 1월 7일 제정되었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1994.1.7 법률제4718호)에 의거 시/군/구 단위에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지역문화 발굴 보존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며, 지방문화원의 육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육성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문화사업 및 향토문화 연구를 위하여 향토문화연구소, 문화학교, 예덕관, 문화의 집, 향토사료관 등 부설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기타 다른 문화시

설 및 단체와 협력하여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총체적 문화단체이다.

| 분 류 | 지방문화원의 특징 |
|------|---|
| 공간 | - 작게는 몇 십평에서 크게는 몇 백평까지 독립공간 확보 |
| 인적구성 | - 5인 이상 30인 이하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 |
| 운영 | - 43년간 이어져온 전통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된 운영체계 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육성 |
| 프로그램 | - 지역문화 발굴 보존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 -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또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봐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 분 류 | 지방문화원의 문제점 |
|------------------|---|
| 공간 | - 권위적이고 답답한 공간 - 문화의 특징에 맞지 않는 공간의 이미지 - 변화하는 문화의 흐름에 따라 공간도 변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부족 |
| 세대단절 | - 대부분 고령의 명망있는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 젊은 세대들의 참여저조 |
| 이미지 | - 노후화 / 고령층만이 참여하는 향토문화사에 대한 세대간 단절 |
| 향토문화사에 대한 세대간 단절 | - 지역의 향토문화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인데 이러한 지역향토문화사에 대한 계승 및 발전에 대해 젊은층으로의 연계가 단절된 상황임(젊은 세대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무관심) |
| 향토사에 대한 시각차이 | - 향토사에 대한 전통이 전통으로 머무르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 그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작업은 미진한 상태임. 특히 외국인인 상대로 한 지역 문화의 소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 운영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육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 |
| 프로그램 | - 지방문화원만의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미비 |

지방의 223개원의 문화원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요 변화된 사업으로 2004년부터 통합복권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요사업

| 분 류 | 주 요 사 업 |
|----------|---|
| 전국문화원연합회 | 1) 연합회기관지 발간 2) 해외문화단체와의 교류 3) 문화원 관계자 연수교육 4)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참여 5)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개최 및 시상 6) 정보화 사업 7) 문화학교 운영참여 8) 생활문화운동 전개 9) 향토문화자원의 조사정리발간 10)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주관 11) 통합복권기금 운영 |

기금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들은 이전의 사업과는 예산과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다.

지방문화원 운영현황을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지방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콘텐츠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주요 콘텐츠로는 문화원소개, 지역역사, 문화학교, 향토문화연구소, 문화행사, 문화학교강좌, 지역관광, 문화유적, 발행도서, 게시판, 관련사이트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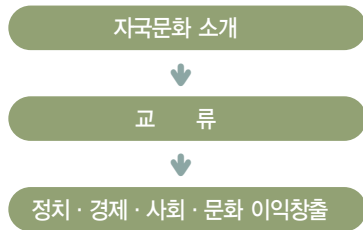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177개나 되는 홈페이지의 효용도는 얼마나 높은가와

전국문화원연합회 2005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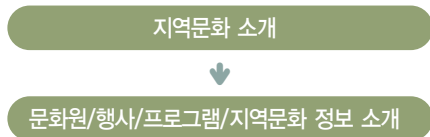
| 분류 | 사업명 | 사업내용 |
|----|--------------------------|---|
| 1 | 지역특성화 문화 발굴·육성 | - 지역의 문화·역사적 특성을 반영,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 개발 |
| 2 | 제20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 | - 민족문화의 근원인 향토문화에 대한 논문 및 자료 공모 |
| 3 | 지역문화 지도사 양성 연구용역 | - 대국민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 지역문화 인력 양성 |
| 4 | 전통생활문화(효종심) 실천운동 | - 전통 생활문화 실천방안 제시 및 대국민 캠페인 전개 |
| 5 | 국민의 시 낭송의 밤 개최 | - 시 공모 및 국회와 공동으로 시인 및 국회의원 등 명사초청 낭송 개최 |
| 6 | 문화원 종사자 교육 | -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 7 | 토론회 개최 및 지방문화원 업무연방 제작보급 | -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개최 및 지방문화원 제반 업무용 편람 보급 |
| 8 | 우리문화 발간 / 지방문화원 수첩 발간 | - 지역문화 전문 잡지 및 업무용 지방문화원 수첩 발간 |
| 9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 - 마을의 문화·역사적 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마을 지원사업 |
| 10 | 통합복권기금 운영 | -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대상 생활문화적문화공간 조성 지원 |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는 되어 있는지, 일반 문화향유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외국문화원의 콘텐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는 주한 영국문화원 홈페이지를 사례로 들었다.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즉, 자국의 문화중 우수한 사례들을 최신 버전으로 소개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문화교류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 사항들을 목표로 잘 정리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우리 문화원의 경우는,



가 주를 이루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일차원적인 목표인 각 지역문화원과 관련된 소개(문화원 소개 및 실적 소개), 지역관련 문화 · 관광정보 제공, 지역내 활동중인 대표

적 문화인프라 소개 등이 대부분이고 외국문화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다양한 교류 및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우리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향후 각 지역 문화자료를 집적하여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문화향유자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문화교류의 창구를 넓혀야 하며 나아가서는 다양한 이익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기존에 형성된 자료에 대한 재가공의 작업이 반드시 뒷따라 져야 한다.

■ 타 문화공간과 비교 통한 방향 설정

또 하나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문화원과 비슷한 문화공간과의 방향성 정립이다. 96년 문화의집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는 동사무소를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의 등장으로 상호간의 역할에 대한 중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데, 문화의 집은 ‘문화창작방’으로 방향을 추구해 나가야하며, 문화원의 기능으로는 ‘지역문화 계승 발전’, ‘지역문화 자료실’, ‘문화교류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IV. 발전방안

■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을 집적하라

전국에 있는 지역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첫째는 다른 문화원이나 문화공간과는 차별되는 독점적 문화자원의 구축에 있다. 이에 대한 방법적 가능성은 <사례1>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문화원들이 각각 지역 생활문화박물관을 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① 지역생활문화박물관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과 같은 유사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용인문화원 '용인시향토문화사료관'이다.

현재 그곳에 소장된 전시목록은 약 367점인데 자료 자료마다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소장된 훌륭한 콘텐츠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극대화시킬 수 없는 방법적 미숙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 지역에 있는 지방문화원들은 개개원 모두 지역의 생활문화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수준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중 하나가 공간인데, 조금만 앞선 생각을 가지고 공간을 활용한다면 추억의 박물관과 같이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생활문화박물관' 지방문화원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② 지역생활문화자료 집적

위에 제안된 지역생활문화박물관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지방문화원들은 각기 지역생활문화자료를 집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문화공간들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도 지방의 문화원을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입각하여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지역의 살아있는 생활문화자료이다. 우리는 대부분 흔하게 우리 곁에 있었던 것들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있는 방안이 바로 문화원 중심의 지역생활문화자료 집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 각 지역문화원을 Network 하라

모이지 않고는 결실도 없다. 223개의 문화원이 각기 움직이는 것보다 서로가 유기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면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파생될 것이다.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활동을 펼쳤을 때 상호간의 발전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지방문화원이 추구해야할 두 번째 과업이다. 223개의 문화원과 그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77개의 사이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면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식과 역할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Network을 통한 축제개최'와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프로젝트' 수행이다.

① Network을 통한 지역문화축제 개최

Network을 통한 축제개최는 일년에 한번 전국에 있는 지방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문화축제이다. 이 자리는 각 지역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각 문화원이 준비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즉, 이 축제를 통해서 각 지방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방문화원에서 개발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다른 문화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축제이기도 하다. 223개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문화마켓이자 지역문화박람회가 될 것이다.

Network을 통한 축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간 각 문화원이 부족했던 부분이었던 '교류'라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고 문화원에 종사하는 담당자들도 한결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어느 축제보다 수준 높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문화원에 대한 위상도 대폭 올라갈 것이다.

축제의 개최는 축제조직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프로젝트 수행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사례2) 책자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각 문화원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와 같이 지방문화원들이 모두 모여 다양한 결과물들을 생성해 나간다면 이것은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에 따라 숨어있는 지역의 젊은 기획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인적자원에 대한 보완의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지속 가능한 테마로는 '지역의 숨어있는 문화자원 220',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향토사 220', '220문화원이 이야기하는 우리문화 우리예술' 등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젊은 문화인력을 끌어 들여라

지방문화원의 미래는 능력있고 젊은 인력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재도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지금까지의 업적을 이루었던 것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고 이해의 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향후 각 지방문화원들에 젊은 문화인력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넓혀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 콘텐츠 개발로 자생력을 높여라

성공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또 다른 재투자와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독점적이며 생산성 있는 콘텐츠 개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모든 문화원들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없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적 상황들을 생산성 있는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현재 각 지역의 문화공간이 갖고 있는 운영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바닷가 마을
눈발 흩날리는 겨울날 바닷가 마을을 지나가다
문득, 나는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내릴수록, 바람이 불수록

문화원 가족의 송년 이야기

2005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역시 각 지방 문화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조금더 친숙하게 우리문화를 알리고자 바쁜 한해였을 것이다. 문화현장에서의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과 뿌듯함으로 내년을 기약해 본다. <편집자주>

지방문화원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영철 | 부회장 · 도봉문화원장

전국의 문화원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입니다.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문화원 발전을 위한 의욕은 많았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그 직을 떠나려 하니 전국의 문화원장님들 이하 직원여러분께 부끄러울 뿐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원은 작금의 사회변화를 직시하고 지역문화를 창조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문화원을 잇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운 전자시스템의 문화원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혁신적 조직구성과 창의적인 사업개발 그리고 자율적인 문화예술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으로 3년, 도봉문화원장으로 10년을 활동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은 새로운 사회변화의 적응능력을 키우고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구성하며 흔들림없는 문화예술행정을 이룩하는 지역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길 바라는 바입니다.

문화원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연합회 부회장과 경기도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과연 연합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연합회의 부회장으로서 권용태 회장님을 보좌하며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문화예술 기관과의 유대강화와 전국 224개 문화원 원장님들과의 긴밀한 연락 속에 우리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선양을 하는 일에 소홀함은 없었던가?

또한 각 문화원과 16개 시·도지회의 여러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영역을 찾아 갈 수 있게 연합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는가를 자문해 봅니다.

제24대 연합회 부회장을 마치면서 잘한 점 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31개 시·군문화원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회장의 소임을 마치게 됨을 고맙고 본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임 송승영 지회장님이 해오시던 향토문화유적 답사와 문화유적 학술조사, 해외문화유적 학술조사를 힘들었지만 계속 진행해왔으며, 경기도내 문화계 합동연수를 다양

국토종단스케치 전시회 기억에 남아

김종기 | 부회장 · 경기도지회장

한 프로그램과 참여적 토론문화를 가미하여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하였습니다. ‘아차산에서 한라산까지 더하여 백두산까지’ 국토종단스케치전을 31개 시·군별로 추진해오다 중단되었던 것을 부단히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남은 14개 시·군의 전시회를 갖고 종합도록 2집을 발간하게 되면서 일련의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어 참으로 보람된 일중에 하나였습니다. 더 바란다면 경기도 각 지역의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한자리에 모아 종합전시회를 가져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기도의 민속놀이, 농요, 무속 등 전통문화를 찾고 발굴하는 ‘경기도민속예술축제’와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수, 보급하여 우수한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준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경기도지회 부설 경기향토사학회 회원들과 같이 각 지역의 분포되어 잘 알려지지 않은 향토문화를 조사, 연구한 논문집 ‘경기향토사학’을 1년에 한권씩 10년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발간하게 되었던 것도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합회와 각 문화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권기금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후원을 받아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 농·어촌민들, 독거노인, 결손가정의 청소년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내와 전국의 문화유적을 순회하며 참가자들에게 우리문화를 알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 한 점 또한 지회장으로서 보람된 일중 하나였습니다. 2005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기는 하지만 보람 있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과 함께 전국에 모든 문화원과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발전을 바라면서 잘 쓰지 못하는 글이지만 이만 마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힘차게 휘를 치고 乙酉年의 새벽을 알리던 닭의 울음소리... 그렇게 2005년의 밝아오는 새아침을 가슴 설레며 기대하던 때가 어느덧 한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의 삶이 여의치 않더라도 또다시 새해를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양양은 山마다 名山이요 물마다 벽계수라 일찍이 千年佛國의 연화세계를 이루었던 가람의 옛터와 불각전우(佛閣殿宇)의 자취가 곳곳마다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의 신비로운 운치와 佛緣의 운기가 가득한 축복의 땅에 일찍부터 우리 조상들이 불교문화를 꽃피워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양양에서는 지난 4월 식목일 발생한 산화로 인하여 천년고찰 낙산사가 전소되어 양양군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마음의 큰 상처를 남겼다. 한편 지난 6월 한국 조계종 시원지인 양양 “진전사”가 복원돼 낙성식을 가졌다. 진전사는 국내 첫 폐사지 복원 사례로 기록되었다.

재난을 교훈삼아 희망을 이야기하자

고경재 | 부회장 · 양양문화원장

본원에서는 불교문화가 이 고장 역사와 향토문화를 주

도해은 원동력이 되었음을 착안하여 우리나라 선종의 초전지로 일찍이 조계종조 도의국사께서 주석하시고 일연선사께서 입산득도한 조계종찰 진전사 중창복원 사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하게 되었다.

양양진전사는 1965년 진전사 3층석탑(국보제122호)과 부도(보물제439호)를 문화재로 지정할바 있는 단국대학교 박물관장이신 정영호박사를 비롯한 학계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로 본원에서 주력한 수많은 탐방객안내와 신문, 방송을 통한 꾸준한 홍보 그리고 여러 차례의 학술강연회 개최 등으로 널리 선양한 인연공덕으로 지난 6월 비로소 우리 문화원가족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숙원불사인 역사적인 진전사 중창복원의 낙성식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진전사는 한국선종불교의 본원일 뿐만 아니라 조계조의 법통이 살아있는 만대의 성지임을 깨닫고 중창복원사업에 많은 분들의 물심양면의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40년동안 오직 불교유적 연구조사에 몰두해오면서도 진전사 부지까지 회사하신 정영호 박사님을 비롯한 학계 여러분과 조계종을 비롯한 무산 회주스님, 석마근 스님 그리고 이 고장 스님 불자 여러분들의 원력, 본군 이진호 군수님과 김주혁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한 향토문화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자연재해는 어느곳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재난을 교훈삼아 딛고 일어서는 용기와 신념이다.

우리가 주력하는 문화 창조도 확고한 가치관의 바탕위에서만 이루어진다. 지난 한해의 삶에 잘못과 아쉬움이 있다하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시작은 미덕이요 성공의 출발이니 오늘이 새롭고 또 내일이 새로운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

○ 유년의 한 해는 제24대 연합회 부회장 임기를 마치는 해이며, 제27대 전남도
○ 지회장 취임해 이면서 35년간 역임했던 영광문화원장 임기만료로 이임하는
해이기도 하다

특히 이낙연 국회의원, 김봉열 군수, 이용주 군의장 등 많은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전통 국악 한마당을 곁들여 펼쳐진 축제 분위기의 이·취임식은 뜻 깊게 생각
된다.

또 이날의 행사로 깊게 넓게 뻗어가는 나무뿌리에 숲의 무성함을 지닌 영광문화원
의 정체성을 널리 알려준 공감대 형성의 문화 한마당을 이뤄낸 것이 보람으로 여겨
진다.

개인적으로도 금년은 옥관
문화훈장을 서훈한 영광의
한 해였다. 10월 문화의 달
행사에 맞춰 열린 시상식에
서는 전주시장이 기증해 준
천년 전통의 전주 한지로 만
든 시가 2백만 원 상당의 천

문화원에 발똥은지 어언 35년...

조남식 | 부회장 · 전남도지회장

연색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와 전북 도립 국악원 무용단의 축
하공연 등 옛날 조정에서 관직 임용 때 행했던 전통의식 그대로 화려하고 장엄한 분
위기 속에서 거행된 훈장 서훈은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군 묘량면 산효리 “효동 마을”이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
어 30억원(국비 20억, 지방비 1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일은 또 하나의 보람이
다.

우리 문화원의 모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 법안의 국회통과가 전국 문화원을 비롯해서 각 시·도지회의 활성화에 주
춧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법안의 조기 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했
으나 연말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아쉬웠던 일의 하나는 우리 전남도지회 사무실이 들어 있는 남도예술회관이 아
시아문화광장 건설로 옮겨야 할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우리 지회 사무실도 연말을 맞
아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다.

다 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전국문화원연합회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이 지방문화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상 미진하다고 일부 불평의 소리도 있으나 이는 잘 해보자는 의욕의 불평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각 시·도지회 주관으로 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진흥대토론회 개최나 지역 소외계층 등의 문화탐방은 지역간의 화합과 문화소외계층과 청소년층에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여가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불응하는 현실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에는 문화사업이 활짝 꽃피길...

이만희 | 부회장 · 경상북도지회장 · 상주문화원장

전국 사무국장 연찬회도 연 1회 정도는 연합회 주관으로, 그리고 연 2·3회는 각 시·도지회 주관으로 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진흥대토론회 개최나 지역 소외계층 등의 문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복귀기금으로 문화탐방이 지속된다면 전국 시·군 문화원에 배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해외문화연수교육은 참가자를 한곳에서 연수케 하는 것보다 그룹별로 나누어 해외 대상지역도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건의합니다.

총괄적으로 연합회의 사업을 평가한다면 전례에 없던 다양한 사업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의 활성화와 문화원 상호간의 연계로 화합의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사다난했던 을유년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누구나 아쉬움과 회오가 남기 마련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합복권기금의 덕택에 지회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지회로서는 실로 고맙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뇌성마비 장애우들과 천년고도 경주로 역사탐방을 했는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금관가야의 고도 김해를 찾았습니다. 대부분이

연만하신 분들이고 아버지를 잃은 모자 등의 결손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감사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 있었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금관가야' 로 여행...

정연구 | 부산광역시지회장

그런데 '이런 재정을 이렇게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생각으로 노령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는데 이들을 위한 작은 생산 공장, 해설사, 기타 문화사업 직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을 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은 한푼이라도 벌어야겠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공부해야 하니 차라리 돈을 얼마만큼 줬으면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조건이 같을 수는 없지만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봉사 할 수 있게 해준 전국문화원연합회와 문화원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축복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전국 문화원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묵은 새배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메세나 운동이 들어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여년이 조금 넘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사회적 책임과 시혜적인 차원에서 일부 재벌급 기업만이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해오고 있었다.

그 후 10여년이 지난 2004년부터 기업에 국한된 메세나운동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메세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 “한국메세나협의회”로 바꾸고 순수문화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서 대중들이 다양한 순수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고객의 소비패턴이 『품질』 중심에서 『가격』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기업들이 소비자의 문

메세나 통한 기업 · 문화 승승효과를...

허문명 | 인천광역시지회장 · 부평문화원장

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문화를 매개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타기업과의 차별화, 고급화하려는 노력이 현재의 추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문화계를 후원하고 문화계는 기업에 창조적인 영감을 주고 기업이미지를 제고시켜주는 win-win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메세나운동을 인천에 도입키 위해 2003년과 2004년에 연이은 토론회를 거쳐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금년의 창립준비를 위한 모임에는 인천의 우수 기업인들과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메세나협의회의 창립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주었다.

이제 뜻 있는 인천의 우수 기업들이 모여 메세나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계와의 win-win 전략에 기초하여 이미지제고를 통한 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계의 폭넓고 수준 높은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속의 인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천메세나협의회가 곧 출범되리라 기대 속에서 신년(병술년)을 맞이하고 싶다.

가장 보람 있던 일, 서울 올림픽호텔에서 가졌던 문화가족 한마당, 그 절정은 문화인 소인극이었다. 셰익스피어가 무색할 그 대사 그 구성 극적 재미는 상품 그 이상이였다. 문화가족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현대적 풍류도 만점이었다.

그리고 로또복권 재활용 문화산업 지원은 문화소외층을 문화의 주체로 길러내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이고 단시적이어서 그 창의성이 아쉬웠다고 할 것이다.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문병란 | 광주광역시지회장

뜬구름잡기 자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원금의 배분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문화일꾼들에 의하

여 사회적 안정자금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로또복권은 횡재의식에서 생겨난 뜬구름이지만 문화자금이 되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금의 집중보조와 증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눠 먹기식 횡재자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아쉽고도 개선해야 할 사항,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방 연합회 산하 지회는 영양실조 아사직전이다. 연합회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시청은 나몰라라 판전이고 연합회마저도 외면한다면 문화가족의 몰락을 어찌할 것인가. 연합회가 지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그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송구영신 문화가족의 행운을 기원하며...

은 유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치면서 2005년을 뒤돌아보면 참으
른 로 다사다난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지나가는 한해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
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못다한 문화사업이 좀 더 알차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기억에 남는 일을 말씀드리자면 충청남도지회가 주관하는 12월 초에 열었던
2005 지역축제 개선·발전 워크숍의 경우 도내 축제의 실질적인 개선과 그 방향은
무엇인지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특강을 통해
축제 주관 담당자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새롭게 이끌어 낸 워크숍으로 만들었습니
다. 내용과 질적인 측
면에서 의미있는 효과
를 낸 성공적인 워크숍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축제의 세계화를 생각하며...

박응진 | 충청남도지회장 · 논산문화원장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
러한 도내 축제의 개선

과 발전에 관한 워크숍을 통해 느낀 점으로 도내 축제가 모두 관(官)주도형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축제,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의
식한 선심성 축제 등이 지역축제의 난립을 주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관주도
형의 성공적인 축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 지역주민의 정서가 어우러진 차
별화 된 축제가 필요합니다. 관주도형의 축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주민이 직접주
도하여 지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제야말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생
명력이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생각도 이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
의 제시가 미흡한 현실은 앞으로 연구 할 과제로 남습니다. 이러한 워크숍뿐만 아니
라 축제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위하여 해외축제를 직접 찾아가 사례를 연구하는 일
도 도지회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쪼록 2006년 새해! 전국의 문화원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누가 세월을 화살이라고 말했던가.

200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때가 엇그제였는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회고 원고를 써야 한다니 참으로 무상하기 이를 데가 없다.

우리 전북지회는 “역동적인 2005”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향토사연구 논문 공모, 경로효친 글짓기 공모, 전북향토문화 심포지엄, 문화체험 프로그램, 임직원 연수, 지역문화원장 워크숍, 전북문화 책자 발간 등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이 바빴다.

2005년은 역동적인 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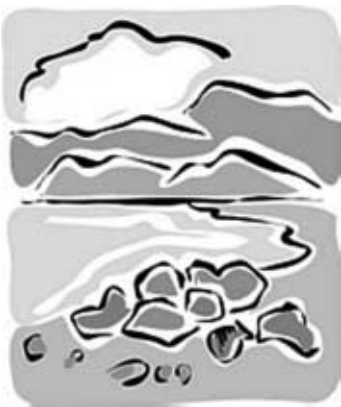
이복웅 | 전라북도지회장 · 군산문화원장

특히 강현욱 도지사가 문화원연합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북지회의 위상이 싹고 도 차원에서 지원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또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가장 평범한 일이겠지만 지역문화원장들의 결속과 친목 일환으로 원장단 모임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가졌다는데 뿌듯함을 갖는다. 이러한 모임은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다만 타 단체보다 예산이 적어 사업계획이 월등히 뛰어난다 해도 기획에 그칠 뿐이라는데 한계가 있다.

아무튼 2005년은 역동적인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진해예술촌 개촌

우리 진해시는 于今 한世紀가 넘도록 군사도시로 일관해 왔기에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멀다. 있는 것은 군인이고 보이는 것은 벚꽃뿐이다. 벚꽃도 4월초 개화기인 10일간 정도에 불과하다. 고로 삭막한 군사도시인 내고향 진해가 문화·예술이 싹트는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는 첫째 시민과 학생들에게 무언가 문화·예술을 시각적으로 보게 해야 했다. 그러다 이곳 중학교 하나가 폐교가 되어 그 터에 진해예술촌을 만들기로 하고 진해시장은 학교 2층에 진해예술인들의 atelier를 만들고 우리문화원은 1층에 향토사료관을 설계했다.

우리가 설계할 향토사료관의 건립 재원은 문화관광부에서 3천만원, 시비 5천만원, 문화원 자체부담 7천만원, 합계 1억 5천만원으로 충당했고 건물을 리모델

링하여 1,2,3전시실, 체험실을 만들고 민속품 1,000여점을 구입하여 2005년 3월 11일 관내기관장 및 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촌 테이프를 절단했다. 개관한 지 10여개월, 각급학생,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족동반으로 옛 조상들이 쓰시던 농기구, 의류, 가구, 식기류 등을 신기하게 공부할 때의 보람은 그간의 피로를 씻고도 남는 보람이다.

'향토사료관' 개관 뜻깊어

박차생 | 이사 · 진해문화원장

진해연도여자상여소리 서울공연

우리문화회원으로 구성된 민속팀이 지난 추석 다음날 서울특별시 서울숲에서 진해연도여자상여소리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왔다. 2005 세계통과의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70여 회원들의 열연은 운집한 1,000여 관중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이번 공연으로 우리문화회원들의 향토문화지킴이로서의 사명감과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긍심을 심어준 것이 큰 소득이었기에 가슴 뿌듯하다. 연도상여소리의 유래는 주업이 어업인 이곳 섬 사람들이 남정네는 모두 멀리 고기잡이로 떠난 뒤 초상이 나면 부득이 집에 남은 여자들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연도섬은 면적이 좁아 장지는 이웃섬인 솔섬에 상여를 운구, 장사지내는 실제풍습이었으나 개화이후 수십 년간 단절되었던 이 풍습을 문화원에서 발굴, 민속으로 재현하여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다.

내년의 문화사업을 계획하면서 너무 짧았던 지난 일년을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교육에서 다룰 수 없었던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학습을 할 기회를 주셨다.

문화원, 예술단체 및 관내 학교가 함께 추진했던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광복6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의 맥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함께 지리산에서 일제가 박은 것으로 보이는 쇠말뚝을 뽑아내는 행사, 강화도 참성단에서 개천대제를 함께 봉행하면서 단군사상을 체험하게 한 행사

바빴던 2005년을 보내며...

최종수 | 감사·과천문화원장

와 추사 김정희 선생에 관한 논문발표, 학술대회, 서간문전람회, 간찰번역, 완당전집 발행, 추사서예교실운영, 유적지답사, 추사서예대전, 추사연구논문집 발행 등입니다.

이들을 통해 추사연구 사업의 기쁨을 마련하게 된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한정된 예산과 준비기간의 부족 및 소홀로 인하여 성과 정리가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많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원 홍보 이렇게 하라

매년 지방문화원은 다양한 사업을 개최한다. 그러나 더러는 기획의도와 컨텐츠가 좋은데도 ‘집안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는 문화 소비자층에 다가가는 홍보기법을 발휘할 때다. 문화원 홍보의 실전 노하우를 신는다. (편집자 주)

1. 보도자료는 중요한 것부터 써 내려가라

몇해 전의 일이다. 모 문화원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내용인 즉 올해에는 크게 행사를 치르니 보도자료를 보고 잘 좀 기사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보도자료를 훑어보니 가장 중요한 팩트인 날짜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정도야 바쁜 문화원 사정을 아는 입장이니 큰 허물이 될 게 아니다.

그러나 보도자료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공문이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정확치 못한 보도자료는 도리어 큰 손실과 낭패를 보는 주원인이 되고 만다. 반면에 누구나 알고 싶은 내용을 아무런 비용 부담없이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비영리법인인데다 행사를 많이 하는 문화원에게는 더 할나위 없는 홍보수단으로 각광받을만 하다.

이제 문화원에게 언론홍보는 ‘필수과목’이다. 그 기초가 바로 보도자료다. 보도자료는 크게 표지와 본문, 첨부내용으로 이뤄진다. 표지를 만들지 않고 바로 본문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지만 가능하면 문화원의 로고와 캐치프레이즈를 그래픽디자인한 표지 양식을 만들어 쓰는 게 좋다. 여기에는 보도자료 총페이지 수등을 적어 나중에 중요한 문서가 빠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제목은 한번에 알 수 있게 써야 한다.

만일 제목이 ‘제10회 정월 대보름 행사’ 등과 같이 일반적이라면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제기차기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가족프로그램 펼쳐져’와 같이 서브 타이틀로 보완하는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날짜와 장소, 전화, 이메일 주소 등을 적는다. 담당자의 휴대폰 전화도 써넣는게 좋다. 문화원 식구들이 얼마 안되다 보니 행사를 앞두고 사무국을 비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기자는 짜증부터 내기 십상이다.

본문 내용은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행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따르겠지만 대략

2~3페이지가 적당하다. 우선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전달한다. 이것이 유도문, 즉 리딩센텐스다. 그렇지 않으면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나)에 따라 1~2줄로 정리한다. 대략 '행사 개최 배경 및 특징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관람 포인트 - 방문 시간 및 요령- 우대 사항 - 개최 배경 및 계획에 대한 주최측 코멘트' 순으로 서술해 가는 게 일반적이다. 또 '제목 독자' 들을 위해 중요한 내용은 중간제목 처리해 주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 내용중의 핵심적 사항을 굵은 서체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좋다. 보도자료 맨 첫페이지나 끝페이지에는 행사요강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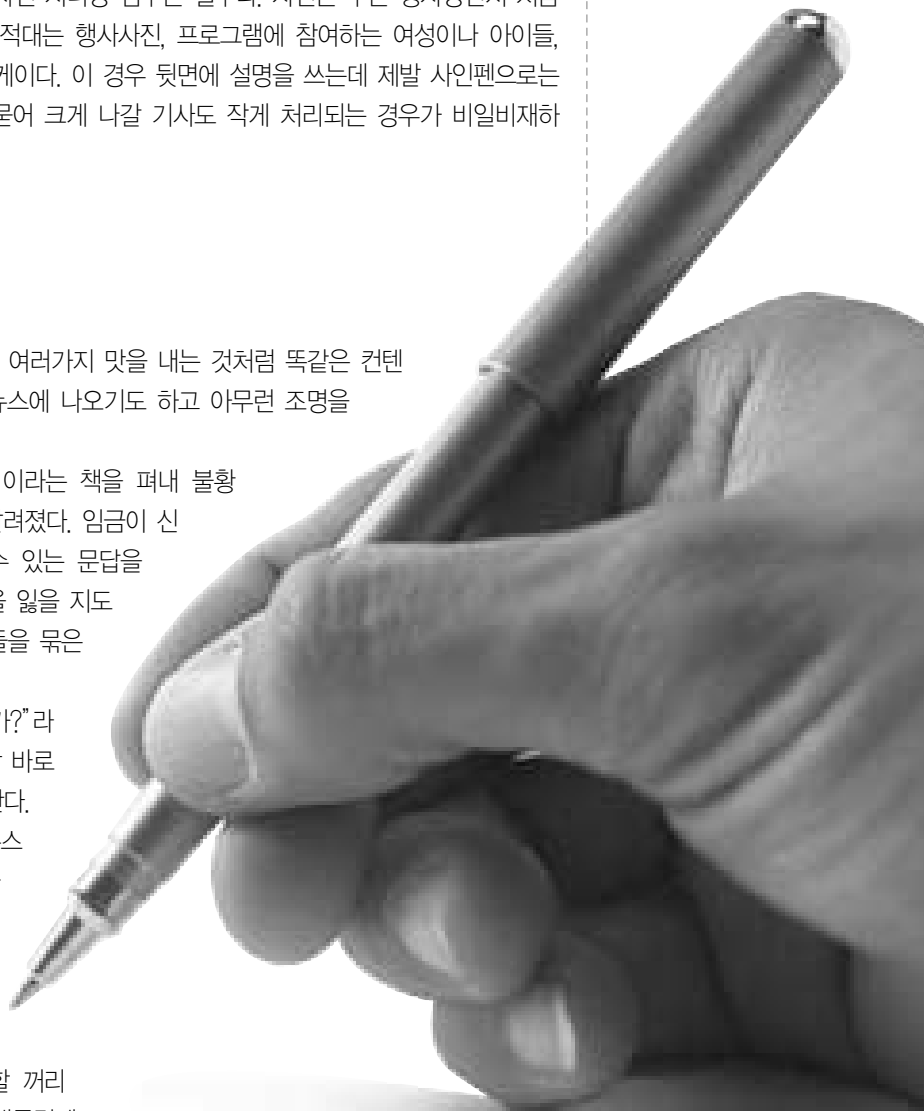
그리고 보도가 크게 나가길 원한다면 사진 서너장 첨부는 필수다. 사진은 무슨 행사장인지 처음 보는 사람도 감이 잡히는 장소에서 복적대는 행사사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이나 아이들, 외국인 중심의 방문객 사진 등이면 오케이이다. 이 경우 뒷면에 설명을 쓰는데 제발 사인펜으로는 절대 쓰지 말라. 다음 사진에 얼룩이 묻어 크게 나갈 기사도 작게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2. 무엇이 뉴스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뉴스인가? 김치도 손맛에 따라 여러가지 맛을 내는 것처럼 똑같은 컨텐트일지라도 가공하기에 따라 아홉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아무런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기도 한다.

최근에 소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책문'이라는 책을 펴내 불황기에 약 1만5천부 정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이 신임관리를 뽑을 때 최종면접이라 할 수 있는 문답을 모은 책으로 신참들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를 직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던 내용들을 묶은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랏일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광해군에게는 "나라의 병은 왕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임숙영은 말한다. 이 책은 모 방송사의 핫타임인 9시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면 기자는 하루에도 100~200권씩 쏟아지는 책들 중에서 왜 그 책을 손에 잡았을까? 그것은 복합적이지만 단순하다. '깜'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빗대어 얘기할 꺼리가 된다. 탄핵을 앞두고 한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 뉴스꺼리가 된 것이다. 만일 그런 정치사회적 배경이 없었다면 아마 이 책



은 출판 관계자로부터 훌륭한 책으로 서평을 받았을 지 모르지만 언론으로부터의 눈길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문화원에게도 돌아보면 뉴스가 될 만한 요소들이 많다. 할머니들에게 국어를 가르쳐 주는 강좌에 수강생들이 늘어났다면 그것 역시 톱기사거리고 문화강좌 중에서 재즈댄스를 배우는 수강생중에 70대 노인이 있다면 그것도 톱기사거리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라면 뉴스가치는 그만큼 특수하게 처리되지 못한다. 즉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

이처럼 뉴스가 되려면 일정한 8가지의 속성중의 하나는 지녀야 한다.

우선은 영향력이다. 그 다음으로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유행성, 정보성, 논쟁성, 독특성등을 지녀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문제가 영향성, 시의성, 근접성, 정보성, 논쟁성등을 갖고 있는 대표적 뉴스거리다.

또한 저명성으로 본다면 대통령에 관련된 일은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이다. 대표적 사례가 노 대통령의 쌍거풀 수술이다. 만일 동남동녀가 쌍거풀 수술을 했다면 그게 뉴스가 되겠는가? 또한 일정부분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면 뉴스가치가 지닌다. 부부문제, 육아문제등이 대표적이다. 찬반 양립이 첨예하거나 상호간에 갈등이 커지면 뉴스가치가 된다. 단 이럴 경우 특실은 따져봐야 한다. 특히 한국문화라는 보따리속에 담겨져 있는 234개의 독특한 지역문화가 모두 최고의 뉴스거리가 된다.

한편 홍보를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앞에서 얘기한 '책문'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더 크게 홍보를 띄우는 수완을 부리지 못해 평면적인 홍보에 그치고 마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볼 때 홍보는 일종의 목적을 위한 전략이고 수단이다. 문화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홍보를 통해 해소할 수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문화원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역량을 소개하는 IR(투자가 관계)을 통해 자금을 모으듯이 문화원도 후원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한푼 두푼 모아 대학에 기부하는 할머니들을 볼 때 마다 문화원들이 생각이 난다. 그 분들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 대학을 찾는데 문화원이라고 대신 그 역할을 못해 드릴 법이 없잖은가? 문제는 그런 독자들에게 대학은 기부대상으로 홍보되어 있고 문화원은 기부대상으로 홍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3.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그릇에 담아라

우리가 홍보 대상으로 삼는 미디어는 비단 조선 중앙 동아 만이 아니다. 20여개에 이르는 중앙일간지와 공중파 방송, CATV, 주월간지, 전문지등 그 수는 100여개에 이른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 전국권 단위의 미디어만을 추린다고 해도 50여개에 이르고도 남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곁에는 돈 안들이고 손품을 팔면 큰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미디어가 많다. 게다가 최근에는 온라인 신문과 지하철 신문까지 가세해 그 미디어 수가 더욱 늘어났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미디어가 이렇게 많은데도 신문에, 방송에 한토막의 기사가 나오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홍보전문가도 자신이 소스를 채취해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언론사에 퍼블리시티를 한 후 노출되는 경우는 10개 미디어중 3개를 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미디어 수는 늘어났는데 왜 노출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미디어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뉴스밸류라는 잣대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선은 항상 일정한 높이에 그어져 있다는 것이다. 단지 현대인들의 취향이 달라져 예전에는 뉴스가치가 없었던 것도 지금에 와서는 큰 뉴스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원이 주최하고 있는 답사나 강좌프로그램, 축제들이 현대인들의 니즈(NEED)와 원트(WANT)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보도자료 역시 현대인의 필요성에 의해 개최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만일 대학생들을 위한 한문교실을 연다면 대학생 중의 몇%가 ‘大韓民國’을 잘 못쓴다는 통계를 조사해 보도자료에 넣을 필요가 있다. 또한 독도문제가 불거지는 요즘에는 ‘내사랑 독도’를 아름답게 쓴 글씨 공모전을 순발력있게 개최하면 더욱 세련된 행사가 된다. 물론 언론에 알려지기 위해 행사를 개최해서는 안되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비교우위적인 기획과 홍보가 필요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문화원들이 새로운 바람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다면 머잖아 매몰찬 바람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화원들이 남몰래 발굴하고 보존해 왔던 ‘한국적인 것’을 이제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다시말해 전통문화라는 내용을 현대적인 그릇에 담는 기획력이 요구된다. 이런 기획 자체가 보도자료 작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4. 언론인들에게 지역문화 체험케 하는 ‘팸투어’

간혹 대학 동아리에서는 사회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을 대학으로 불러들이는 ‘홈 커밍 데이’를 열고 한다. 영어에서 말하는 ‘홈’은 단지 가정 만을 뜻하지 않는다. 야구용어 홈베이스나 고향을 뜻하는 홈타운이 모두 ‘본거지’라는 의미를 함축하다.

홈 커밍 데이가 대학에서 졸업생 선배를 대학이란 본거지로 다시 불러들여 후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행사라면 팸투어는 주로 신문 방송 관계자들을 현장이라는 본거지로 불러들여 지역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홈커밍데이라고 할 수 있다.

팸투어의 팸은 영어로 익숙해지기(familiariation)라는 뜻을 갖는다. 우리가 중국 베이징이나 태국 방콕을 다녀온 후 TV에서 베이징이나 방콕에서 불이 났다,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흘러나



오면 평소에는 무관심했으나 이때만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팸투어는 사회적 여론 여성의 코디네이터인 언론인들에게 우리네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방문지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PR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혹자는 팸투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사의 크기도 커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언론 종사자들도 자신들이 소속해 있는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원인 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3일 출장을 다녀온 후 두 석줄 기사로 할 일 다했다고 하기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기자도 인간인지라 지식이 많아지고 친밀도도 높아져 심리적으로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방문지에서 많은 시간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흔한 말로 ‘필’이 꽃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즉 보도자료를 보낼 때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술이 필요하듯 팸투어를 실시할 때도 핵심적 내용을 보여 주는 능력이 홍보담당자에게 요구된다.

모름지기 유능한 홍보담당자라면 사전에 홍보 컨셉을 갖고 팸투어에 나서야 한다. 문화관광의 대표적 행사인 축제를 예로 들어 본다면 취재를 온 기자들에게 주최측이 ‘스스로 알아서 보시고 잘 써주세요’ 하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것은 행사 주최측 입장로나 미디어를 대하는 입장로나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모름지기 행사 주최측, 홍보 담당자라면 이들 미디어가 요구하는 내용을 찾아내고 또한 자신들이 미디어에 전달하고 싶은 컨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런 준비야말로 자칫 일어날지 모를 오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일이 된다. 이처럼 주최측 관계자는 행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팸투어의 경우 보도 포인트, 사진 포인트 등 컨셉을 챙겨야 하는 게 이들의 의무이다.

다시말해 보도자료를 보내는 행위보다는 보도자료에 담을 내용을 기획하는 행위가 더욱 중요하듯 팸투어는 신문방송 관계자를 초청해 주위를 둘러보게 하는 실행력 보다 이들에게 무엇을 새롭게 인식시켜 줄 것인가를 고려하는 기획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홍보는 글자그대로 널리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견자(異見者)를 설득해 동의자(同意者)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석이 있다면 한발 빠르게 설명회를 가져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홍보맨은 부정적 여론을 끄는 소방수가 아니다. 홍보맨은 긍정적 여론을 기획하는 전략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보의 속성을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로 “홍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홍보는 일종의 전략 전술이다. 전략적 홍보를 하려면 전체적인 홍보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획력, 대상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이해력, 언론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현장력, 미디어에 합당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설득력, 그리고 다른 대상과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러한 홍보전략전술을 ‘홍코너’에서 구사하는 일이 팸투어라 할 수 있다.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mckang999@hanmail.net

중년(中年)

성냥갑을 흔들어본다
 텅 빈 것을 알면서도, 혹시
 무슨 소리가 남아 있지는 않을까
 귀 기울여 흔든다, 혹시
 무슨 불타는 소리가 조금쯤
 남아 있지는 않을까

문단속을 안 하면
 악몽(惡夢)을 꾸는 나이
 죽어가는 나를 사람들은 지나치고
 소리없는 고향 지르다 잠이 깨면
 베개 젖어 있는
 여기는 또 다른 늙
 그런 밤, 서성거리다 가끔
 책상에 앉는다
 텅 빈 것을 알면서도 혹시
 무슨 낙서가 남아 있지는 않을까
 색 바랜 원고지
 글씨 번진 편지봉투와 면도기, 감춰둔 유인물
 한 때의 것으로 돌리던 그 모든 것들을,
 자리를 바꿔보다가
 고개를 꺾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무슨 눈 뜨는 소리가 남아 있지는 않을까
 무슨 꿈틀거리는 기억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의원 애송·자작시 모음집에서〉



우상호 |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갑·열린우리당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열린우리당 홍보미디어위원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詩로 하나되는 국회 '국민의 시 낭송의 밤' 성황리에 끝나

전국문화원 연합회(회장 권용태 權龍太)는 2005년 11월 24일 국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민의 시 낭송의 밤」을 개최했다. 깊어가는 가을밤 국민의 시를 통해 정서를 함양시키고 생활속의 문화활동으로 시를 권장해 간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올해 3번째 맞는 국민참여 시낭송 행사이다.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시인 및 국민들과 한데 어우러져 시심(詩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뜻 깊은 자리라 여겨진다는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전국문화원연합회가 국회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로 '열린 국회' '문화 국회'를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함께 시낭송 행사가 막을 올렸다.

본인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나는데 어머니가 계신 곳에 자신이 갔을 때 되려 본인을 어머니께서 못 알아볼까 걱정된다는 황금찬 시인의 '어머님이 들려주 시던 이야기' 시 낭독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시인, 전국의 문화원장등 21명이 시 낭송자로 참여했다. 또 지난 10월 공모를 거쳐 11월 수상한 전국문화원연합회주관 "전국 창작시 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정금자 씨와 국제결혼 이주 주부로 공모에서 수상한 엠밀린다엠초우(필리핀) 및 아마모토 슈우토(일본)씨들이 참석하여 자신의 수상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갖어 눈길을 끌었다.



“이젠 한국인 시인 다 됐어요”

전국문화원연합회주최 전국문화가족 창작시 공모전에 국제결혼 이주 주부 4명 수상

시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문화가족 창작시 공모전」수상자 32명 중 4명이 국제결혼 이주 여성 주부여서 화제다. 그 주인공들은 필리핀계 한국인 에밀린다초우(43세), 베벨리로스노(32세)와 일본계 한국인 아마모토슈우코(36세) 그리고 조선족인 최향화(26세)씨가 그들이다.

'life'와 'My nativeland'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 <곡성문화원장상>을 받게 된 에밀린다초우씨와 베벨리로스노씨는 99년과 2000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현재 각각 2남과 1남을 두고 있는 주부이다.



'똘'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 <국제펜클럽한국본부이사장상>을 받게 된 아마모토슈우코씨는 95년도에 귀화하여 1남 2녀를 두고 있는 주부이고, '겨울밤'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여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을 받게 된 조선족 주부 최향화씨가 그 마지막 주인공이다. 최씨는 2002년 시고모님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으며, 현재 1남 1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에밀린다초우씨와 아마모토슈우코씨는 '국민의 시' 낭송의 밤에 우수작 입상자들과 함께 자신의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현재 곡성문화원의 영어강사로 활동 중인 에밀린다초우씨는 "이렇게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이제 시인으로 등단해야겠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이들의 시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DMZ의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활성화 방안

1. 들어가는 글

한반도의 일부만 땅이면서 남북한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특수한 지역!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서게된 그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비무장지대(DMZ)이다. DMZ는 반세기 동안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된 결과로 무려 2716종의 야생동물과 67종의 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자리 잡았다. 또한 DMZ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철책선, 판문점, 초소, 민간인통제선, 지뢰, 산불사태 등 여러 표현의 단어가 떠오른다.

DMZ가 그동안 남과 북의 '국경' 역할이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반도의 땅의 화해와 통일의 출발선으로 다가섰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은 그 역사를 알아야 하고 남과 북의 분단의 현장인 그곳에 가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그 역사적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과 경위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일부 국민들은 비무장지대가 왜 생겼

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어떻게 신청하고 방문하는지 거의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최고의 관광상품은 "분단"이라는 말이 있다. 얼핏들으면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의 분단상황을 빗댄 자조적 표현처럼 들린다. 한국은 DMZ와 판문점 남측구역을 안보관광지로 이용하고 있고 남방한계선에 위치한 전망대와 북한측이 파내려온 남침강도(땅굴)를 안보관광지로 지정해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인기있는 관광코스이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중요성과 관심이 한층 높아만 가고 있다.

한편 북한도 판문점(북측구역)을 관광자원화하여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선전을 위해 평양-개성-판문점 관광코스를 만들어 상품화하고 있다.

2. DMZ(비무장지대)란 무엇인가?

DMZ의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과 민북지역(민통선북방지역), 접경지역의 형성배경과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로 1945년 8월 일본군의 무장해제(武裝解

除)를 위해 미국과 구 소련이 가른 행정적 선인 북위 38선(소위 삼팔선)이 형성되었다. 그 후 1953년 7월부터 발효한 군사정전협정으로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 과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가 탄생되었다.

군사정전협정(1953. 7. 27) 제1항에서 제시하는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 완충지대화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전협정 제2, 3항에는 군사분계선의 위치와 비무장지대의 위치 및 비무장지대의 남북경계선(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은 첨부지도로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전협정 제9, 10항에서 제시하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련된 인원과 군정위의 특정한 허가를 받은 인원(1,000명 이내) 외 비무장지대 출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이남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 책임이며, 군사분계선 이북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사

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사이의 전투배치선(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육지 길이 248km(155마일)와 서해해상 약 200km의 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으로 설정됨으로써 육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 22만km²의 약 1/250에 달하는 총 907km²(2억 7천만 평)지역의 비무장지대(길이248km, 폭4km)로 유지된 것이다.

임진강 강변에 세워진 군사분계선(MDL)표식물 제 0001호부터 시작하여 동해안 고성군 명호리의 표식물 제1,292호까지 흑색 글씨에 황색 바탕의 총 1,292개 표식판 가운데 696개는 유엔군의 관리책임이고 596개는 북한과 중국의 관리책임이다.

DMZ는 남쪽으로부터 남방한계선, 한국군 방어선, 군사분계선, 북한군의 제1방어선, 제2방어선, 북방한계선 등 5개의 선 또는 그 이상의 선이 평행해 그어진 곳이다. 따라서 비무장의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 곳은 한국군 방어선과 북한군 제1방어선 사이이다. 그 사이가 어떤 곳은 2~3km, 어떤 곳은 수백m 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

3. DMZ(비무장지대)의 실태

우리는 그동안 DMZ에 대해 너무 무심했다. 사생아 처럼 내팽개쳐진 저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현실을 보면 군사분계선 북측의 경우 북한이 정전협정 직후부터 비무장지대를 침범하여 북방한계선 이남에 철책선을 가설하기 시작하



였고, 1970년대 후반에 제2세대 철책선 가설을 완공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측도 비무장지대로 진입하여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인 비무장지대 내에 철책선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북한측은 북방한계선에서 비무장지대내로 1km~1.5km 까지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고, 남한측 역시 남방한계선에서 500m 까지 비무장지대로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으며 일부지역은 그 이상까지 들어가 설치된 곳도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이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측의 경우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 근거리까지 다수의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고 무장 전투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무장상태는 각종 진지 354개소(박격포진지 234개소, 고사포진지 92개소, 대전차포진지 28개소), 4개의 갱도(땅

굴), 29.4km의 지뢰지대, 282개소의 감시소(Guard Post: GP) 및 관측소(Observation Post: OP), 철책선, 막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한측도 이에 대항하여 철저한 방어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내 주요지점에 제한된 수의 GP와 OP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한측은 GP 및 OP 100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적으로 북한측의 약1/3 수준이다. 이와함께 남한측은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다수의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DMZ가 요새화되면서 속칭 중무장지대(HMZ, Heavily Militarized Zone)로 변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주요 안보관광 루트로 자리잡고 있는 서부지역 1땅굴과 3땅굴, 중동부전선 2땅굴과 4땅굴도 비무장지대를 침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무장지대의 관측소는 유사시 완전무장한 병력이 즉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새진지가 돼 있다.

진지마다 대략 30명 안팎의 1개소대가 주둔하고 있으니 비무장지대 내에만 남북을 합하면 1만여명에 가까운 무장된 병력이 상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진지는 소총 등의 개인화기는 물론이고 박격포 등의 공용화기, 이밖에도 자동소총을 비롯해 수류탄 및 대전차 방어용 화기 등 각종 무기로 무장돼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는 모두 100여 만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분계선 총 248km중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로 군사분계선과 남·북방 한계선상에 개방된 지역은 경의선의 폭 250m, 동해선은 폭 100m 정도

이고 대부분의 비무장지대와 철책은 존재하다. 한편 비무장지대 한계선 안팎은 상대방을 변함없는 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군사작전은 일정한 지점의 시야에 방해가 되는 나무들이나 그밖의 산림을 시계청소(視界淸掃)라는 이름으로 불태워버린 곳이 적지 않다. 비무장지대는 우리군의 통제권 밖에 있는 유엔사군 사정전위원회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출입에 있어 유엔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도 유엔사와 해야 한다.

4. DMZ의 관광자원

DMZ는 한국전쟁의 민족분단과 동족상쟁으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상징이며 민족사의 산교육장이다. 피흘림의 대가로 우리에게 남겨진 보물이고 훌륭한 교육재료이며 세계적인 관광자원이다. 또한 DMZ는 역사성과 가치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에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삼국시대 고구려·신라·백제 영토싸움이 치열했던 것을 비롯해 우리 민족 역사의 중심이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반세기 가량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지역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한다면 우리 역사를 새롭게 바라볼 많은 유물·유적들을 만나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다. 관광자원으로서의 비무장지대 특성은 역사적 상징성으로 동서냉전체제의 대립과 전쟁의 산물이며 민족분단을 고착해 왔던 장애의 상징물이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파멸과 보존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쟁과 분단의 상징물인 비무장지대가 역설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을때 그 관광지의 상징성은 관광지의 매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DMZ의 관광자원적 가치에 있어 자연생태관광자원적 가치, 역사문화관광자원적 가치, 안보관광자원적 가치, 교육관광자원적 가치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우선, 자연생태관광자원적 가치는 비무장지대는 50년 가까이 사람 출입이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잘 유지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강도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물고기가 살아가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로 생태계가 대체로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낮은 인구밀도와 개발 역제의 반사적 효과로 양호한 자연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최근 비무장지대는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민통선 북방지역을 국제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정하려는 민통선 북방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후보지는 강원도 고성군과 인제군에 걸쳐있는 향로봉 산맥일대와 양구군 동면 대암산 및 방산면 일대, 그리고 철원평야 등 3개지역 총 613km²이다.

이들 지역들은 향후 자연관광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무장지대

의 향로봉산맥과 대암산 일대는 우리나라 식물구계(植物區系)상 남북방한계선을 이루고 있어서 한반도 생물군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자연관광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대암산 정상 해발 1,300m에 펼쳐져 있는 용늪은 남한에서는 유일한 물이끼 고층습원으로서 세계적으로도 희귀함을 인정받는 생태계의 적지이다. 또한 양구군 수입천 상류인 두타연은 지난 72년 우리나라 열목어(熱目魚) 최다서식처로 보고됐던 곳이며 철원은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17종의 희귀조류가 절종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식하고 있는 '철새의 낙원'으로서 탐조관광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비무장지대에는 우리의 역사와 자연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다. 과거 취락지·경작지·소택지·계곡 등이었던 일부 지역은 수십 년간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둘째, 역사문화관광자원적 가치는 DMZ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만큼 역사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관광자원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최근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주도권을 갖기위한 격전의 장으로 남아 있으며, 한국전쟁에서 유적문화재가 대부분 파괴되어 있으나 그 역사문화적 가치는 크다.

특히 임진강·한탄강 연천 및 철원 주변은 선사시대와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문화유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역사문화의 산교육장이자 박물관이 되

고 있다.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성곽이나 건축물인 관방유적, 유물, 문화재가 분포하여 왔다. 한국전쟁으로 여러 문화재들이 크게 훼손되거나 멸실되었지만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오히려 문화재의 보고가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남북한 어느 쪽도 비무장지대를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안보관광자원적 가치는 북한과의 절박한 대치상황이나 허망한 전쟁유적, 도발현장, 국토분단의 비극 등을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DMZ 일원이다.

이곳에서는 비무장지대의 복원, 생태계, 북측의 산하, 6.25격전지, 철책선, 군시설물 및 군인활동, 시각선전물, 가장마을 등 소상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도시(개성, 평강), 주민생활 및 생업현장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자원 자체는 북쪽에 있는 것이지만 안보관광성이 강한 이들 자원들을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교육관광자원적 가치는 서해에서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의 역사의 숨결과 자취가 남아있는 곳을 한국전의 전장과 함께 보존한다면 국가방위, 문화유산 전승이 잘 간직된 역사교육의 현장 장소로 체험탐방, 역사탐방, 평화안보교육, 수학여행코스 등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DMZ관광의 실태

DMZ관광의 현실은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교육측면에 치중하여온 것이 현실이고 북한의 남침 상징인 4개의 땅굴(갱도)와 전망대가 연계돼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DMZ관광상품의 특징이라 하겠다.

예를들면 연천지역의 제1땅굴(비무장지대내에 있어 관람불가)과 상승OP, 철원지역의 제2땅굴과 월정전망대, 파주지역의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양구지역의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로 집약할 수가 있다.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비무장지대를 찾는 이유는 첫째, 한국에 대한 인식을 동서냉전의 이념대립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수 많은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체험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둘째, 비무장지대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사적 분단의 현장이면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자연생태계의 보고' 라는 이유일 것이다.

셋째, 특히 내국인들에게는 판문점과 DMZ는 민족 분단과 동족상쟁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며 후세대를 위한 안보 및 생태관광의 보물이며 관광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현재 DMZ관광이라고 해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김포시의 애기봉과 파주시의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전망대와 연천지역의 1,21북한간첩침투로,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 제일의 곡창지대에 매년 40~50만의 철새가 날아들고 분단의 생생한 상흔이 서려 있는 곳으로 옛)태봉국도성지가 있고 고석정을 비롯한 자연자원과 노동당사, 월정리역, 백마고지 등 안보자원이 풍부한 중부전선 그리고 화천의 평화의 댐과 양구의 편치볼지구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 중동부전선과 최근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부상된 고성동부전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서부전선의 판문점을 비롯한 오두산통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전망대의 관광상품이 방문객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 지역의 외국인 방문객의 부진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교통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해야겠다.

한편, DMZ 생태관광 현황은 지역의 특성상 생태자원 발굴은 거의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각 지역별의 도라전망대, 태풍전망대, 철의삼각전망대 등에서 비무장지대 생태계를 소극적인 관찰위주로만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관광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연해설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한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음마 단계라는 사실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여행자의 생태관광에 대한 생소함은 물론이고 생태관광에 대한 교육이 안되어 있는 현실이다.

6. DMZ관광의 활성화 방안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비록 비무장지대에는 민간인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이 살아온 5천년 역사의 자취가 도처에 숨어있어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전쟁의 상흔과 폐허 위에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인간의 손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DMZ야말로 울창한 산림, 맑은 물,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환경을 최소화하는 희귀 동식물의 천국인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생태체험관광을 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에코투어리즘(Eco tourism) 즉 생태여행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자연의 소리, 냄새, 등 오감에 의한 체험이 바로 생태체험관광의 묘미인 것이다. 생태관광은 기존의 대중관광이 환경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강해지자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생태계의 조화를 꾀하는, 보전적 대안관광의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간섭을 덜 받은 지역에 대해 자연 보전성을 증대시키고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여행을 하면서 자연과 그 주변의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즐기자는 것이다.

여행자가 지역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사회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도 생태관광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도 하다.

필자가 운영하는 DMZ관광주식회사는 비무장지대 관련 평화안보관광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력하고 공

부한 것을 밑바탕으로 우리 초·중·고생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특정 지역의 명성에 따라 단순히 경관만 보고 스치는 여행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DMZ의 안보자원과 생태계를 접목한 평화안보 생태체험 관광상품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우리 조국의 분단 현실을 가까이 볼 수 있고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 여행을 통해 안보와 청정생태체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하도록 비무장지대 현장을 체험탐방하는 관광상품을 출시하였다.

이번에 출시한 DMZ생태체험탐방 관광상품은 전국에 있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단체에 한해 접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 생태체험탐방은 생태계의 전문가와 함께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으로 계절마다 테마를 달리하여 봄에는 풀꽃, 여름에는 물고기, 가을에는 곤충, 겨울에는 철



새 등 대자연의 산림, 환경, 생태 그리고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DMZ관광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대자연을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해 DMZ의 산림

과 숲 그리고 늪지대가 훼손되지 않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한 역할을 위해 연구소 내에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연보존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백두대간 뿐만 아니라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DMZ 대자연의 매력을 만끽하도록 산림, 생태, 문화, 체험 수련을 위한 현장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7. 맺는말

DMZ생태체험관광과 관련 지속가능한 관광전략을 기본으로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상을 유도하면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안보여건상 DMZ 안보관광 또는 생태체험관광이 접근하기가 너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최근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그동안 유엔사에서 관장하던 비무장지대가 지난 2004년 11월 1일부로 서해안부터 동해안 까지 전구간을 우리 한국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상태에서 DMZ 및 민간인 통제선에 민간인 입출입이 용이하도록 방문규정 및 조치 완화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DMZ관광 활성화의 시발점일 것이다.

특히 최근 국방부의 문민화와 군문화로 일신하기 노력하는 '열린 국방'과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의 실천의지를 기대하여 본다. 둘째, DMZ의 생태체험관광지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생태체험 관광코스화 해야 한다.

셋째, DMZ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태체험관광관련 토산품 및 기념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DMZ생태체험관광 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체험관광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제도화하여 전문화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DMZ는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생태자원의 보고로 생태관광지로 부상할 지역이므로 난개발을 막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라도 DMZ의 산림과 숲 그리고 늪지대가 훼손되지 않는 생태계 보전 범위내에서 생태관광지화가 되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로 DMZ의 생태체험관광은 외국인들에게는 대단한 흥미의 가치가 있으므로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한몫을 할 것이다. 필자는 DMZ 생태체험관광이야말로 국내 및 세계관광의 어느 시장에 내 놓아도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당사는 우리나라의 DMZ에 대하여 차별화, 전문화, 특성화해 안보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비무장지대 평화와 생태체험관광에 선도적이며 구심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그랜드캐년, 일본은 후지산, 프랑스는 에펠탑, 중국은 만리장성 등이 연상되듯이 '대한민국' 하면 DMZ, 'DMZ' 하면 '생태체험관광'이 연상되도록 비록 작은 힘이나마 국내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글 _ 장승재

DMZ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 판문점&DMZ관광 연구소장
pd0727@dmztourkorea.com

새 박물관으로 역사 공부 떠나요~!!

‘국립중앙박물관’ 꼼꼼히 둘러보기



어느덧 새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한지도 한달여가 흘렀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규모를 자랑하며 발돋움 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온 가족이 오붓이 역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유물 전시관은 물론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 보았다.

가족나들이로 제격~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 생긴 ‘어린이 박물관’은 눈으로만 보는 일반 전시실과는 달리 북을 두들기거나 토기를 조립하는 등 체험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자칫 지루해할 아이들에게 제격이다. 이곳은 ‘따뜻한 집, 삶의 보금자리(주거)’ ‘쌀과 밥, 농사짓는 도구들(농경)’ ‘무

기와 무사들(전쟁)’ ‘마음과 영혼의 소리(음악)’ 등 4개 영역에 57개의 아이টে으로 꾸며져 있다.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워크시트(학습지)를 활용해 아이들이 배운 것을 바로 공부할 수도 있다. 이곳은 하루 6회, 회당 150명씩만 입장시켜 1시간 30분씩 운영하고 있다. 단체와 개인 모두 인터넷(children.museum.go.kr) 예약을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

도자기와 금속공예, 전통염색, 서화 교실 등의 문화 체험의 장도 열린다. 화,수요일 열리는 전통 염색과 서화 교실은 1개월 과정이며, 치자, 괴화(회화나무 꽃), 물푸레 등을 염료로 우리 고유의 색깔을 염색하는 전통 염색 기법을 배울 수 있다. 매주 목, 금요일에는 도자, 금속 공예 강좌가 열리며 모든 수강료는 무료로 재료비만 내면 된다.(문의 2077-9357~9)

테마별 관람을~

세계 6위 규모의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45개나 되는 상설 전시실을 갖췄다. 무작정 갔다간 헤매다 오기 십상.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계획을 짜고 가는게 좋다. 홈페이지에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일정과 목적에 맞춰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를 소개해 놓았다. 명품 50선에서 100선과 같은 명품 관람부터 역사탐방, 문화여행 등 어른, 어린이를 포함한 학생들을 위해 PDA 등을 이용한 다양한 테마 관람 추천 코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5000년 역사 탐방기'는 빗살무늬토기, 백제금동대향로 등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들을 엄선했다. 전체 관람은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우리 미술 바로 알기'는 회화와 도자기, 조각 등 전통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2시간 짜리 코스다. 이 밖에 박물관 추천 명품 50선, 수학여행 베스트 50선, 선사시대 여행 등 연령별, 소요시간별로 다양한 코스가 있다.

연말까지 무료 입장!

올해말까지 입장이 무료이다.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64세 이하는 2000원, 7세 이상 18세 이하는 1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매달 넷째 토요일은 무료입장이며 관람이 끝나기 1시간 전에는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선셋제도'로 직장인을 위한 관람 자리를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 17개 문화기관 중 5개 기관을 방문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을 5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뮤지엄 쿠폰'도 이용해 볼 만하다.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7시까지이다.



어떻게 갈까?

당분간 주말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좋다. 박물관에는 승용차 800대 주차가 가능한 옥내 주차장이 있지만 주말에는 인근 차도에게 지 주차할 정도로 번잡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4호선과 1호선 국철 환승역인 이촌역이 가까이 있고 보광동에서 옥수동으로 가는 초록버스 021번과 신세계백화점을 다니는 빨강버스 9502번이 바로 앞을 지난다.



진품 명품 여기 다 모였네~!!

박물관에서 찾아본 명품 유물

빗살무늬토기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V자형의 간결한 형태로, 그 겉면에는 점과 선을 연속적으로 새겨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다. 신석기인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토기에 예술적 장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였다. 한편, 토기 아래쪽에 뚫린 구멍은 깨진 토기를 임시로 수리하여 사용했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의 토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드는 기술자가 따로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암사동 집터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요령식동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요령식 동검이다. 우리나라의 동검은 그 형태와 중심 분포지역에 따라 크게 요령식 동검과 한국식 동검으로 나눌 수 있다. 요령식 동검은 주로 중국의 요령지방과 한반도에 걸쳐 분포하는데, 그 중심이 요령지방이어서 요령식 동검이라고 한다. 요령식 동검은 검몸과 손잡이를 한꺼번에 만드는 중국의 동검과는 달리, 검몸과 손잡이를 각각 만들어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요령식 동검의 이런 특징은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국식 동검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농경문 청동기

앞면에는 머리 위에 긴 깃털 같은 것을 꽂은 채 따비로 밭을 일구는 남자와 괭이를 치켜든 인물이 있고 그 옆에는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인물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좌우에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 끝에 새가 한 마리씩 앉아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 우리 민속에서 보이는 솟대 신앙을 연상케 한다. 청동기시대의 농경양상과 농경의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당시의 회화 수준을 짐작하게 해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대전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관 꽃이

무령왕비 관의 좌우에 꽂은 장식으로 얇은 금판을 뚫어 무늬를 새긴 것이다. 중앙의 꽃병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연꽃잎들이 그 위로 날개가 펼쳐진 모습이다. 『구당서(舊唐書)』의 ‘(왕은) 검은 천으로 된 관에 금 꽃을 장식하고...’ 라는 기록은 이 관 꽃이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백제금동대향로

악취를 제거하고 부정을 없애기 위해 향을 피우던 도구이다. 아래에는 다리 하나를 치켜들고 있는 한 마리의 용이 갓 피어나려는 연꽃봉오리를 입으로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신선들이 사는 박산(博山)이 있다. 박산의 꼭대기에는 봉황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는 모습이다. 연기는 봉황의 가슴과 두껍게 뚫려 있는 12개의 구멍으로 피어오르도록 고안되어 있다. 국보 제287호로, 충청남도 부여 능산리의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이마리도자기

‘이마리’ 도자기는 일본의 에도시대에 일본 사기현 아리타 지방에서 제작된 도자기로 일본의 규슈지역의 ‘이마리 항구’에서 수출되었다고 하여 이마리 도자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도자기는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에서 도공들을 데려가 도자기기술을 발전시킨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도자기는 코발트로 그림을 그려 장식하거나 유약 밑에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방식을 응용하여 화려한 도자기를 만들어 졌으며, 백자의 바탕에 코발트로 그림을 그린 ‘소메쓰케’와 색깔이 화려하게 많이 들어간 ‘이로에’ 도자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의 이마리 도자기는 해외수출 이후, 유럽에서 이마리 도자기를 흉내 낸 도자기가 만들어질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물고기와 닭은 용 장식 병

1975년 5월 전남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 의해서 길이 28.4미터의 배와 3만 여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배는 1323년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해가던 무역선이었던 것으로 고려자기나 일본의 유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중국 유물이었다. 이 청자어룡식화병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두껍게 유약에 의한 비취색과 무문양 등 당시 중국 도자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삼채말

중국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당삼채마’이다. 삼채는 녹색, 황색, 백색, 적색, 갈색 등의 물감을 칠해 산화시켜 구운 도자기를 말한다. 삼채는 한대 이후 납이 들어간 유약을 기본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었으며 당삼채는 황색, 녹색, 남색, 적색등의 기본 유약을 교차시켜 칠한 다음 구운 자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당삼채는 생활용기 뿐 아니라 왕실 무덤의 부장품으로도 쓰였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통일신라 751년경. 국보 126호. 8세기에 간행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다. 다라니 경문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적어놓은 것으로, 1966년 10월 경주 불국사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하면서 발견되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죄를 없애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 경문을 외우거나 또는 작은 탑을 77기, 99기를 조성해 그 안에 다라니경을 안치하는 등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인쇄문화의 높은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 시찰 후 세운 비

국보3호. 6세기 중엽 신라 진흥왕은 크게 영토를 넓혔으며, 개척한 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비를 세웠다. 북한산비는 그러한 여러 비 가운데 하나로 555년 무렵에 현재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비봉 정상에 세워졌다. 진흥왕이 신하를 데리고 이 지역을 시찰한 사실을 적고 있다. 비 오른쪽 측면에는 1816년에 금석학자 김정희가 비를 조사한 일을 새겼다.



대동여지도 판목

대동여지도는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우리나라 전국 지도이다. 우리나라를 남북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별로 동서방향의 지도를 수록하였다. 각 층의 지도는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도록, 접고 펼 수 있는 책자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지리지식의 폭넓은 유통을 위해 목판본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때 사용된 목판의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의 제작 시기는 조선 철종 12년(1861)이며,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고려 관리 허재의 석관

고려 중기의 관리 허재의 석관(石棺) 즉 돌로 만든 작은 관이다. 세로로 세운 측면 네 개의 돌 안쪽에는 묘지명의 내용을 사방으로 돌아가며 새겼고, 바깥쪽에는 사신(四神)과 방향을 나타내는 12개 동물을 새겼다. 고려 시대 석관 묘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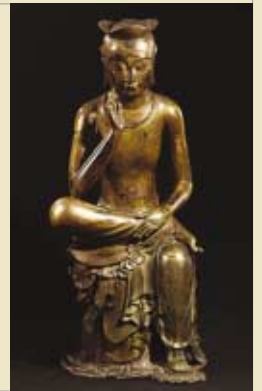


김홍도《풍속도첩(風俗圖帖)》

보물 527호, 종이 위에 담채.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들은 대체로 소탈한 서민생활의 단면과 생업(生業)의 모습을 소재로 한 것이 많다. 또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감정을 한국적인 해학과 정취를 곁들여 생생하게 나타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모두 스물다섯 점으로 이루어진 단원풍속화첩은 주변의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연습 삼아 그린 작품처럼 보이면서도 투박하고 강한 필치와 짜임새 있는 구성의 솜씨는 김홍도 회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풍속화첩의 제작 시기는 40대 전후로 추측된다.

반가사유상

삼국 7세기 전반.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걸치고(半跏) 오른 무릎 위에 올려놓은 오른팔로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思惟) 모습을 지닌 상을 가리킨다.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은 입가에 머금은 생기 있는 미소, 살아 숨쉬는 듯한 얼굴 표정, 부드럽고 유려한 옷주름, 상체와 하체의 완벽한 조화, 손과 발의 섬세하고 미묘한 움직임 등 모든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된 동양불교 조각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백자 매화·대나무·새 무늬 향아리

15~16세기. 국보 170호. 이 향아리에는 도화서 화원의 솜씨가 돋보이는 한국적인 문양들이 담겨 있다. 연꽃 봉우리 모양 꼭지가 달린 뚜껑에도 대나무와 매화가 있다. 전면에 걸쳐 대나무, 매화, 새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으며, 한국적인 정서가 돋보인다. 중심 문양은 청화안료의 발색이 짙고 강한 반면 뚜껑의 매화와 대나무 그리고 하단의 잔잔한 국화, 구연부의 넝쿨 같은 주변 문양은 의도적으로 색을 열게 함으로써, 그림의 입체감과 사실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경천사10층석탑

이 탑은 134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3미터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려 후기 석탑이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단부터 3층까지는 네면이 튀어나와 있고 4층부터는 네모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탑이다. 경천사 10층 탑은 1층 탑신의 서면은 영산회상이 조각되어있는데 영산회상은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 놓고 설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운데 설법하고 있는 부처님을 조각하고 그 주위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등을 새겼다.



토우가 붙은 항아리

뱀, 개구리, 사람 등의 토우가 어우러져 항아리에 붙어 있다. 개구리의 왼쪽 뒷다리를 물고 있는 뱀이 대칭으로 배치되고 뱀 사이에는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왼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표현되어 있다. 뱀, 개구리, 사람 등이 비교적 단조롭게 표현된 토우이나 신라인의 예술성과 사상을 엿 볼 수 있다. 국보 제195호로, 경주 노동동 11호 무덤에서 출토됐다.



도깨비무늬 기와



이마에 뿔이 돋아난 도깨비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든 악귀를 막기 위한 기와이다. 이 기와는 유약이 입혀진 것으로, 왕궁인 임해전의 안압지 주변 건물 지붕의 마루 끝을 장식한 기와이다. 도깨비의 이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 마루의 끝부분에 못으로 박아 고정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됐다.

말 탄 사람 토기(주전자)

말을 타고 있는 주인과 하인 모습의 토기이다. 말의 앞가슴에 액체를 따를 수 있는 긴 대롱이 달려 있어 주전자와 같은 기능의 토기로 생각된다. 주인은 장식이 화려한 말을 타고 고깔모양의 모자에 갓웃을 입고 있다. 하인은 수건을 동여맨 상투 머리에 옷웃을 벗은 채 등에 짐을 메고 있다. 하인의 손에 방울을 들고 있어 길 안내를 하고 있는 듯 하다. 국보 제91호로,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됐다.



추사 김정희가 쓴 자신의 별호에 대한 글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은 때에 맞는 것이요, 웃어야 할 때 웃는 것은 중용에 가까운 것이다’는 말로써 추사 김정희는 묵소거사라는 호를 스스로 짓고 몸소 이에 대한 찬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았다. 필획의 변화가 크고 날카로운 필치의 해서로, 날카로움 속에서 정중함과 정성을 담아 쓴 흔적이 엿보이는 이 글씨 속에서 추사 김정희라는 대가(大家)의 풍모가 느껴진다.





용맹한 호랑이

18세기 이 그림은 호랑이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묘사한 것으로 흠잡을 데 없는 화가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가느다란 붓으로 힘차게 반복하여 그어댄 선으로 위용이 넘치는 운동감과 긴장감을 주는 표정, 털가죽의 무늬와 질감까지 사실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표현했다. (필자 미상)

대보적경

국보 246호, 고려 현종 때 제작된 초조대장경으로 찍은 목판본 가운데 하나이다. 대보적경은 여러 경전의 내용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 49개의 주제로 정리한 것으로, 이 책은 그중 '문수사리수기회'에 해당한다. 713년 당나라의 보리유지 등 17명이 편집했다. (고려 11세기)



손으로 쓴 화엄경

보물 1137호, 불교에서 경전을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것을 사경이라 한다. 사경은 많은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 행위로 여겨졌다. 이 전시품은 흔히 화엄경으로 일컬어지는 대방광불화엄경을 사경한 것으로, 당나라의 승려 반야가 번역한 정원본 40권 중 권 제4에 해당한다. 표지에 금니로 정(眞)이라 쓴 것은 정원본임을 표시한 것이다. 경전의 본문은 은니(銀泥)로, 표지의 제목은 금니(金泥)로 썼고, 상수리 열매로 염색한 고급 종이를 사용했으며, 병풍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이처럼 화려한 사경은 불교를 높이 받들던 고려시대의 것들이 많이 전한다. 이 전시품은 1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쉽게도 사경의 경위를 기록한 사성기(寫成記)와 변상도는 전해지지 않는다.

큰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보물 970호, 조선시대 불경을 간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간경도감에서 세조 11년(1465) 판각 간행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한글 번역이다. 간경도감에서 번역한 불교 관련 서적 중 『원각경』은 전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한글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불경의 제목은 “방정하고 광대한 깨달음의 세계인 ‘원각’을 설명하는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글 _ 김보라 기자

국도 변에 노래비 세워 ... 대표적 관광지로 유명세

‘울고 넘는 박달재’로 관광객 발길 붙잡는 제천시
비내리는 박달재 촌농부 내외 이별장면 그려
작사가 반야월 씨 지방공연 가다 노랫말 만들어

(1절)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
물항라 저고리가 굿은비에 젖는 구려
왕거미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2절)

부엉이 우는 산골 나를 두고 가는 님아
돌아올 기약이나 성황님께 빌고 가소
도토리묵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우는 구나 박달재에 금봉이야

(3절)

박달재 하늘 고개 울고 넘는 눈물 고개
돌부리 건너차며 돌아서는 이별 길아
도라지 꽃이 피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금봉아 불러보나 산울림만 외롭구나

아직까지도 술자리에서 자주 불리는 우리
나라 대중가요들 대부분은 트로트 풍의 옛
가요들이다. 물론 대학생 등 젊은 층들은
빠른 템포의 신세대노래를 즐기지만 술자
리에서 얼큰하게 취하다 보면 누구라 할
것 없이 흘러간 대중가요를 부르며 흥겨워

한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래가
바로 <울고 넘는 박달재>이다. 충북 제천
지역의 어느 고개를 소재로 한 국민애창곡
이다.

필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마산에서 초등
학교시절 소풍갔을 때 애창곡으로 불러뒀



고 서울로 와서도 친구들과 노래방에라도 가는 날엔 이 노래가 단골로 나온다.

일반인들은 이 노래가 2절까지만 돼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은 3절까지 있다. 노래방이나 일반 노래테이프, 음반에 주로 2절까지만 담겨있다 보니까 그런 줄 알지만 그렇잖나.

〈울고 넘는 박달재〉는 작사가 겸 가수로 유명한 원로음악인 반야월(본명 박창오) 선생이 노랫말을 쓰고 작곡은 김교성, 노래는 박재홍 가수가 불렀다. 4분의 2박자 트로트 풍인 이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1948년에 만들어졌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됐을 무렵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서울 종로에 있는 우미관에서 가요콩쿨대회가 열리곤 했다. 일본인들이 떠난 서울거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폈다. 오랜만에 열리는 콩쿨대회 댄 신청자가 수백 명에 달했고 관중들이 구름 떼처럼 모여들었다.

무대에 오르는 출연자들에게 자유곡과 지정곡이 주어졌던 그 때의 노래자랑대회엔 〈울고 넘는 박달재〉가 단골곡으로 불려졌다. 어떨 땐 출연자의 70%가 이 노래를 불렀을 정도라고 하니 가히 인기를 짐작할 만 하다. 아마추어가수들의 애창곡이자 대중들의 인기유행곡이 된 건 물론이다.

수십 전이나 새로운 한 세기가 바뀐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 노래의 탄생사연은 이렇다.

반야월 선생이 8·15해방 후 남대문악극단을 조직, 단장이 되어 어느 날 지방순회 공연을 떠나게 됐다. 악극단은 트럭에 무



대장치물을 신고 버스엔 가수, 악사, 코미디언 등 단원들이 타고 공연길에 나섰다. 서울을 떠난 악극단은 충북 충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제천을 향하는 길이었다. 충주시와 제천시 사이의 큰 고개인 박달재를 넘을 때 앞서 가던 트럭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멈추게 됐다. 단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타이어 손질하기를 기다렸다.

그때의 지방도로는 엉망이었다. 비포장도로에다 먼지투성이로 보통 험한 게 아니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나빠 굵은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반 단장은 차에서 내려 지나가는 어느 할아버지 농부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이 고개가 무슨 고개이고 산 이름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박달재이고 천등산입니다”는 것이었다.

그 할아버지농부가 지나간 뒤 반 단장이 한쪽 산모퉁이를 돌아보다가 한 순간 촌농부 내외인 듯한 사람에게 눈길이 멈췄다. 반 단장은 이들이 성황당 돌무덤 장승 앞에서 서로 붙들고 울고 있는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헤어지기 아쉬워 눈물을 지으며 작별하지 못하는 촌농부 내외를 바라본 반 단장은 ‘필시 안타까운 사연이 깃들여있는 이별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반 단장은 직업의식이 발동, 그 때 느낀 현장감 있는 시상(詩想)들을 메모해 호주머니에 넣었다. 트럭타이어 손질이 끝나 단원들을 태운 차는 무사히 목적지 제천에 도착, 공연을 마쳤다. 제천공연 후 반 단장은 호주머니에 넣어둔 메모지를 꺼내 깨끗하게 정리했다.

박달재에서의 촌농부 이별모습은 곧바로 노랫말이 됐고 작곡가인 김교성 씨가 곡을 만들어 가수인 박재홍 씨에게 취입토록 해 탄생된 노래가 바로 <울고 넘는 박달재>이다.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님아 물

‘천등산 박달재를~’ 언제 들어도 정겹고 어깨가 들썩여지는 서민풍의 옛 노래로 제천시 대표곡이라 할만 하다.

항라 저고리가 굵은 비에 젖는구려...’로 이어지는 이 노래는 대중가요이기 전에 당시 서민들의 사랑을 가식 없이 담아낸 한편의 순박한 시였다. 물색 항라저고리의 금봉이란 여인이 비

내리는 박달재에서 남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온화함과 정겨움으로 그려낸 것도 감칠맛 나는 대목이다.

노랫말에 들어있는 금봉이는 어느 새 그 지방의 전설 속으로 파고들어 박달이란 선비와 함께 로맨스를 엮어낸 것으로 구전되고 있다.

박달재휴게소 관광안내판에 나오는 금봉낭자와 박달선비의 러브

스토리는 <울고 넘는 박달재>가 히트, 대중 속에 스며들면서 사실처럼 각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중가요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 노래를 취입해 불렀던 가수 박재홍은 <울고 넘는 박달재>로 일약 대스타로 명성을 얻었다. 충주~제천 사이에 있는 박달재는 이 노래 덕분에 지금은 유명한 관광명소가 됐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38번 국도변(4차선) 박달재휴게소 입구엔 노래비가 서 있고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가 쉽 없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며 지나가는 길손들을 붙잡는다. 그 휴게소엔 노래 속에 나오는 도토리묵을 들면서 막걸리와 노래에 취하게 만든다.

‘천등산 박달재를~’ 언제 들어도 정겹고 어깨가 들썩여지는 서민풍의 옛 노래로 제천시를 대표곡이라 할만 하다.



글 _ 왕성상 | 뉴시스 부국장

필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남인수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별없는 마산항> <마산포 순정> 등을 취입했고 기자가수 1호로 sbs 등 방송출연과 글을 쓰고 있다.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등록번호 865호) 소속. wss4044@hanmail.net

향토문화발굴의 초석다진 ‘제20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198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이 올해도 열렸다.

권용태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집 발간사에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전국 각지의 향토문화를 발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방향 모색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자긍심과 연구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자들의 논문 내용과 심사평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모든 수상작은 전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www.kccf.or.kr)에서 볼 수 있다.

대상 | 황의호(黃義虎 대천여고 교감)

「보령 城洞里 中淤水利稷 연구」

이 논문은 충청남도 보령시 운천읍을 관통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웅천천을 막아 설치한 성동리 중보와 중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직한 중보수리계에 대하여 일제 시대의 자료를 중심으로 현지를 조사하여 서술한 논문으로 이곳 주민의 공동체 활동이 이 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필자는 해당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인적사항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성동리 보의 규모와 물리 면적, 물리 혜택, 물리 문제로 인한 분쟁과 처리 등을 자세히 서술했다. 또한 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보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실들을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분석하여 적절하게 인용해 놓았다.

향토문화논문부문 | 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이준범(李準範) 마포구 문화체육과

「近代 歷史·文化 空間 楊花鎭에 對한 研究」

-서울 外國人墓地公園을 中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위치한 외국인 묘지공원에 대하여 구한국 외교문서를 비롯한 새로운 문서와 선행된 논문들을 토대로 외국인 공원묘지공원과 그와 관련된 총체적인 역사를 규명한 글이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현지답사, 구술사 녹취,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양화진의 자연환경, 묘지공원의 역사, 매장외국인의 인적사항, 외국인 묘지

에 대한 사회인식, 지역정체성 확보,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방안,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지의 묘지공원의 현황 등을 참작했다.

향토문화논문부문 | 우수상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상)

조광환(曹光煥) 정읍 학산여중 사회교사

「사발통문에 대한 제 고찰」

정읍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핵심자료인 원본 사발통문 1종과 필사본 사발통문 2종을 수집, 분석하여 심도 있게 서술했다.

사발통문을 발견한 경위와 원본과 필사본 비교, 사발통문의 제작시기와 진위, 성격 등을 규명하여 지금까지의 발표된 고부의 농민봉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했다. 본격적인 농민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무장봉기설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다.

향토문화논문부문 | 우수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상)

강원지역문화연구회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샘밭장을 통해 본 현대 오일장의 의미」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샘밭 시장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를 답사, 구술녹취, 설문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발굴하여 작성한 글이다.

필자는 샘밭 시장의 인문지리와 역사적 배경, 시장개장, 시장의 공간구조와 사람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장, 문화공간으로서의 장, 주민화합의 기재로서의 장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서술했다.

향토인 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료조사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짜임새 있는 체제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술했다.

향토문화논문부문 | 장려상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상)

박동철(朴東喆)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과정

「'버버리찰떡'으로 본 지역음식문화의 생산과 소비」

안동지방의 대중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버버리찰떡이 첫째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생산되어 소비되었는지, 둘째 버버리찰떡이 21세기에 부활하면서 예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셋째 오늘날 버버리찰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 세 가지의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서 안동지방의 문화, 나아가서 한국문화를 조명해보려고 노력했다.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과거와 현재에 버버리찰떡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면담조사를 하고, 그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경주했다.

향토문화논문부문 | 장려상 (사단법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회장상)

황상현(黃相賢) 영남대학교 국사학과 재학

「兩班村의 歷史文化遺産과 發展的 活用方案에 관한 일 考察」

-영양남씨(英陽南氏)와 영덕군(盈德郡) 영해면(寧海面) 괴시리(槐市里)를 中心으로-

五大姓 八宗家 씨족들의 명가가 번성한 곳으로 알려진 영덕군 영해면의 역사적배경과 함께 英陽南氏의 동성촌락인 호지촌의 생성배경과 지역문화사적 위상을 다양한 자료와 현지답사를 통해서 풍부하게 제시했다.

호지촌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현존하는 민속자료와 함께 동종 결속을 실천하는 문중행사를 살피므로써 지연과 혈연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배경을 관광자원의 중요한 콘텐츠로 하여 현대적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향토문화자료부문 | 최우수상 (문화관광부장관상)

심현용(沈賢容) 울진군청 학예연구사

「천축산 불영사의 신자료 소개」

천축산 불영사의 불연 2채와 불패 2기, 인현왕후 원당상량문 1점과 명곡집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비교적 희귀한 자료로 심용현씨가 새로 발견한 귀중한 자료이다. 불영사의 사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민족이 보존을 잘못해서 자료가 잘 보존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소실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란을 겪으면서도 영불사에 귀중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경하할 만한 일이다.

향토문화자료부문 | 우수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안길정(安吉正)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조행일록〉의 무대 성당창과 익산 일대의 조운 유적」

조행일록은 이미 널리 알려진 자료이긴 하나 필자는 전북 익산시 성당면의 성당창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조행일록을 비롯한 대동여지도 등 많은 자료를 조사하여 사진으로 정리 첨부했다. 필자가 쓴 글을 보면 1. 조운이 국가경제에 차지한 위치, 2. 금강연안의 옛 조창 성당창과 옹포, 3. 조운쇠퇴와 성당창의 운명이라는 제목을 달아 서술했다.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으나 총체적으로 보아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선정됐다.

향토문화자료부문 | 장려상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상)

류금열(柳今烈) 원주열심기협의회위원

「日帝強點期 中央線 雉岳터널 掘鑿의 再照明」

이상로 옹이 제공한 [中央線北部第十四工區雉岳隧道] 공사 기념사진첩은 매우 귀중한 사진첩으로 일제강점기의 일인들에 의하여 시행됐던 한국철도개설사의 살아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강원도 지방은 1950년 6.25 전쟁 때 모든 자료가 거의 소실되고 현재 남아있는 사료가 극히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선북부제십공구 치악수도 공사 기념사진첩은 큰 가치를 갖는다.

보령 城洞里 中湫水利稷 연구

'2005년도 전국향토문화연구자 큰잔치'에서 황의호 충남 대천여고 교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황씨는 논문 '보령 성동리 중보수리계'에서 보령 일대의 보(湫) 시설과 웅천천 지역에 관한 일제 시기 자료를 발굴해 수리시설의 변천사를 다뤘다. 이를 요약 정리해 본다

하천을 막아 수위를 높여 물을 끌어오는 시설이 보(湫)이다. 소규모의 보는 벼농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발굴 작업의 성과로 그 역사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복합 취락 유적에서 나온 보의 유적은 약 2500년 전이고¹⁾,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서 나온 보의 유적은 1730±70-1240±60 년전이다.²⁾ 반면 천방(川防)이라 불린 대규모의 보는 16세기부터 라고 알려지고 있다.³⁾

충남 보령시 웅천읍을 통과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웅천천 하구의 넓은 범람원과 완사면에는 많은 보에 의해 냇물이 공급되어 모두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하구의 넓은 갯벌은 오래 전부터 간척되었고, 보를 축조하여 물을 공급하였다.

냇물을 막고,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대규모의 인력을 필요로 했고, 물을 분배하고 보를 관리·운영하는 데는 엄격한 규칙이 필요했으며, 주민의 공동체 활동이 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사회 민중들의 생활사를 밝히는데 湫의 연구는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영구적인 보와 수로를 축조하면서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은 湫의 관리나 운영에 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농사만 지으면 되게 되었다. 水利湫의 기원과 역할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水利湫에 관한 조사 연구는 地域史를 밝히고, 과거 민중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보령시 웅천읍에서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많은 湫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의문이었고 언젠가는 연구해 보겠다고 다짐하였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웅천읍 성동리에서 중보수리계에 관한 7건의 문헌을 발굴하였다.

이에 필자는 발굴된 자료를 분석하고 주민들과 면담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짓던 시기의 보에 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05년 1월에서부터 10월에

1) 중앙일보 2005년 3월 19일자

2)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주) 大宇, 2001, 寬倉里 遺蹟, P 506/

3)이태진, 1981, 16세기의 川防(湫)灌溉의 발달-士林勢力 대두의 經濟的 背景 一端-, 韓勳博士 停年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중보수리계 관련 문헌 사진



중보수리계 規約準則, 地區台帳, 계원명단



중보제 流用記



중보수리계 賦課金 領收簿



중보제기록부



중보수리계 문헌



중보수리계장 직인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답사하여 많은 주민들을 면담하고, 토지대장 열람과 함께 등기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 국가지리정보원을 방문하여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구입하여 판독하기도 하였다.

이 보고서가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농업경제, 마을공동체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웅천천 하류에는 예부터 10여 개의 보가 만들어져 450여 정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는데, 언제부터 보를 축조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지명, 유적, 전설 등으로 아주 오래되었음을 유추해 볼 뿐이다.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湫(川防)가 만들어진 16세기 이후로 추측된다.

■ 성동리 마을의 중보는 웅천천에서 갈려나온 앞내에 막은 보로 4351m의 수로와 98정보(1468斗落)의 몽리구역을 가진 대규모의 보이다. 수원(水源)이 좋고 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현재도 옛 그대로 농업용수를 공급

하고 있다.

■ 수로 곳곳에 배수로(뚝아보)를 설치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하천을 가로지르기도 하는 등 여러 자연장애를 극복하고 긴 수로를 만들어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 중보 수리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조직되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문헌에 의하면 1931년에 보령군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았다. 등록 당시 중보수리계는 지주를 계원으로 하여 조직되었으나 곧바로 작인(作人)이 계원이 되었다. 당시 몽리면적의 81%가 대지주의 소작지였다.

■ 중보수리계의 임원으로 계장(계주), 內監視, 外監視을 두었으며, 계원의 대표로 평의원과 湫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湫軍을 두었다. 평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유급이었다.

모든 문서에 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계장이 통일되어 있다. 주민들은 보주(湫主)라고

도 부르는데 문서에 표기하는 것은 모두 계장이다. 행정관청에서 수리계 조직을 문서화했기 때문에 계장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1930년에 만든 중보수리계 규약에 의하면 계장은 계원이 선출하고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임명장이 전해지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군수가 임명하다가 해방 후에는 임명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1930년부터 1935년까지는 계장과 이사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위촉되었으며 그 이후 1947년까지는 계장이 이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후는 계장만 기록되어 있다. 계장이 계를 대표하면서 모든 사무처리도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에서 2001년까지 54년간(자료가 없는 년도는 제외) 계장을 역임한 사람은 12명이다. (기록이 없는 연도(1962-1970)와 알 수 없는 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함) 이들은 모두 마을의 지도자이다. 특히 임성순은 장항선 철도부설 당시 성동리 마을을 대표하여 보령군수, 충청남도지사 등을 상대로 탄원하여 제중교(濟衆橋) 22간을 건설하고 790간의 제방을 쌓기도 하였다. (황의호, 2003, *웅천 성동리 堤防事實碑*에 관하여, 보령문화 12집.)

1986년도 이후는 수리계의 역할이 축소되고, 마땅한 사람이 없어 오종권씨가 계속해서 맡아오고 있다.

계장의 수당은 1935년에 일반 품삯의 67일분, 1943년에 30일분, 1952년에 50일분,

1977년에 45일분, 1979년 33일분 등이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는 현물로 벼 2등 54kg 기준 4가마~7가마였다. 수당은 1일 품삯과 비교하여 볼 때 점차 줄어들었다. 농업기술, 농촌경제의 변화와 함께 계장의 지위가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수리계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起工式, 지주회, 평의원 및 대지주소작인회 등이 있었는데 평의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모두 처리하였다. 매년 처음 열리는 평의원회를 起工式이라고 하였다.

■ 수리계원의 부담은 수리계 등록 당시에는 지주는 현금 부담, 作人은 노동력과 가마니 부담이 원칙이었으나, 곧바로 모든 부담을 作人이 지게 되었다. 부담 중 현금은 필요에 따라 부담하였다. 노동력은 舍湫라 하여 1년에 1회 모든 경작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고, 경작 면적에 따라 부담하였다. 일반적으로 2斗落에 品1개와 1斗落당 가마니 1넵이 원칙이었다. 品을 내지 못하면(品厥) 현금으로 내었다.

1972년부터는 부역이 모두 폐지되고 斗落당 현금을 거두어 人品을 현금으로 사서 보를 유지 관리하였다. 2001년부터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 作人의 부담은 없어졌다.

■ 중보는 앞내에 있는 여러 보 중 가장 우월한 지위를 가졌다. 중보 위쪽에 있는 방아보, 밑에 있는 흙보, 장연보 등 모든 보가 중

보에 종속되었다. 중보가 가장 먼저 설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중보수리계의 配水 관행은 배수에 관한 절대 권한이 所任(계장, 배수감독)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평상시에는 내외평에 1주야(24시간)씩 교대로 2회 공급하고, 내평에 12시간을 더 공급하였다. 내평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중보의 몽리구역이 내평에서 외평으로 확대된 것을 말해 준다. 가뭄 때는 소임의 절대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때는 벌금을 엄격하게 부과하였다.

小亭坪, 오동터 등 몽리구역 이외에도 물을 공급하였는데 모두 돈을 받고 공급하였다.

■ 보를 둘러싼 여러 문제와 분쟁들이 있었다. 사평보와 용수확보의 경쟁, 물길을 막는 문제, 가뭄 때 물레방아를 돌리는 문제, 보 근처 하천을 개간하는 문제 등인데 모두 강력하게 대응하여 용수를 확보하고 보를 유지하였다.

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은 물레방아 문제, 중보 상류에 자갈을 쌓아놓은 문제, 중보 근처 하천부지에 논을 만든 문제 등이다.

물레방아와의 문제에 관한 기록

증빙서가 있는데 1956년 작성된 것으로 성동리 밭성굴 위뜸에서 물레방아를 운영하던 김인호가 중보수리계장인 임필순에게 써준

것이다. 농사철 보에 지장이 있을 때는 중보수리계에서 방아를 중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임의로 물레방아를 사용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이 물레방아는 중보 바로 위쪽에 있는 방아보에서 물을 돌려 방아를 돌리고 중보 바로 밑 하천으로 물을 버리는 물레방아로 현재도 수로가 그대로 남아있고 물도 흐른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물레방아는 중보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보다 농사짓는 농업용수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농사를 지어 알곡만 생산하면 방아는 아무 때 쪼개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보의 유입 수로에 자갈을 쌓아 일어난 분쟁에서 받은 서약서이다.

서약서

중보 공사에 방해 하였음은 유감천만입니다. 차후로는 절대 이런 행위가 없기로 서약하고 서기 一九六二年 四月 九日 十日 양일간의 작갈 적체 한 것을 방해자로서 지장없이 타처에 운반하고 수리에 대한 절대 방해가 없기로 서약합니다.

西紀一九六二年 四月 拾日

熊川面 城洞里

吳日圭

중보계장 김 창재 貴下

잘못을 사과하고 지체 없이 다른 곳으로 운반한다고 서약서까지 써준 것은 수리계의 힘이 강력하였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1935년 4월 10일 임성순이 중보 상류의 하천에 논을 만들어 피해가 예상되자 수리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내용의 신문기사이다.

1935년 (소화10년) 4월 10일 조선중앙일보 기사

보령군 中非沺 중보의 다른 이름.

의 改築重修를 渴望

關係當局에 陳情

보령군 웅천면 성동리(保寧郡熊川面城洞里) 중비보(中非沺)는 농민(農民)의 생명선을 가진 큰 보(沺)인데 하절을 당하면 홍수로 인하여 보막이 터져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중수하게 되는 처지인바 그 동리 임성순(任性淳)씨가 작년부터 그 보막이 한 옆에다가 하천부지(河川敷地)로 삼백평의 논을 뜨느라고 뚝을 막게되어 시내물이 넓게 퍼져서 흐르는 것이 좁아지게 되었다 한다.

그리하여 장마만 지면 그 보막이는 터질터이니 농작에 중대문제라고 모든 작인들은 불만에 싸이여 그 보의 계장(契長) 김달제(金達濟)씨 이하 중역 장영근(張英根) 오병윤(吳炳允) 리근오(李健五) 오중근(吳重根) 오씨가 대표로 교섭위원이 되어 군경량청과 도당국에 진정차로 방금 진정서를 작성중에 있다고 하며 한번은 장래를 매우 주목한다고 한다.

임성순은 중보 수리계장을 수년간 역임하고, 성동리 왼쪽을 막는데 공헌을 한 성동리 마

을의 최고 유지이다.

그런 사람이 중보 위에다가 300평의 논을 만드느라고 하천 폭을 좁게 하여 홍수 때 보가 위험하게 되자, 수리계원들이 모두 일어나 보령군청과 보령경찰서 충청남도청 등에 진정을 하는 내용이다.

마을의 유력자라 하더라도 수리계에 피해를 주면 타협하지 않고 대항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들은 수리계의 관개용수 확보와 보 시설물의 확보를 위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수리계원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수리계는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결사체였던 것이다.

■중보의 세시풍속은, 1-2월(독뜨기)→2-3월(기공식)→3월(뜰작업, 보무저지)→4월(전보매기)→5월(모내기, 수초작업)→6월(뚝아보 뜰치기, 수초작업)→11-12월(결산회) 등이다. 이외에도 심한 가뭄이나 홍수가 나면 전보매이를 하였다.

중보의 수로는 옛 모습 그대로이다. 특히 용두뿌리 구간은 암반을 굴착한 곳이기 때문에 변형의 염려도 없다.

용두뿌리 구간만이라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에 발굴된 중보수리계 문서도 민속자료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중보의 세시풍속

| 월별 | 내 용 |
|--------|--|
| 1~2월 | 독뜨기 : 보 축조에 쓰일 돌을 캐는 일. 삼재에서 돌을 캔 기록이 있다. |
| 2~3월 | 起工式(평의회회) : 매년 첫 번째 여는 평의회회이다. 대개 2~3월에 열리는데 새해를 맞이하여 보계장, 배수감독, 평의원 등을 선출하고, 품결 대금, 배수규정 등 제반 규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초기에는 평의회회 중보계 등으로 불렸으나 1960년부터는 기공식으로 불렸다. |
| 3월 | 뚝작업, 보무저지 : 기공식이 끝나고 바로 뚝작업에 들어간다. 뚝작업은 보수로로 정비하는 것으로 무너진 곳은 다시 쌓고, 낙엽이나 모래 등 퇴적물은 모두 거두어낸다. 보무저지는 보를 정비하고 물이 고이도록 만드는 일이다. 돌, 땃장, 가마니 등을 이용하여 보둑을 단단히 막아 수위(水位)를 높이는 일이다. |
| 4월 | 전보(全洩)매기 : 논에 물을 대기 전에 몽리구역에 논을 가진 모든 작인(作人)이 총 출동하여 보를 쌓고 보수로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1942년에는 4월 17일하였고, 1943년에는 4월 18일이었다. 매년 음력 4월 중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
| 5월 | 모내기, 수초작업 : 과거에는 양력 6월 10일을 권농일로 정하여 모내기의 최고 적기로 보았다. 성동리 지역에서도 양력으로 6월 초, 음력으로 5월에 모내기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로에 수초가 자라면 물 흐름을 방해하여 수초를 제거해야 하였다. |
| 6월 | 뚝아보 뚝치기, 수초작업 : 홍수 때 수로로 모여든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 뚝아보이다. 장마철에 배수를 소홀히하면 논에 큰 피해를 입힌다. 장마철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뚝아보를 관리한다. 5월에 이어서 수로의 수초를 제거한다 |
| 11~12월 | 결산회 : 농사를 다 짓고 수리계를 결산하는 회의이다. 결산회를 생략하고 다음해 기공식 때 전년도의 결산을 함께 하기도 한다. 수계로도 기록되었다. |
| 가뭄, 홍수 | 전보, 개항(開項) : 시기와 상관없이 가뭄이 계속되거나 홍수가 나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전보를 내어 보를 정비하기도 하고 웅천천 본류에서 물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중보로 들어오는 물길을 깊게 판다(開項). |

글 _ 황의호(黃義虎) | 大川女高 校監

1953년생으로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수료(교육학 석사)했다. 대전문화원 이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보령의 봉수대』, 『보령의 고인돌』 등을 집필했다.

정리 _ 서희정 기자

지방문화원 중심 실버프로젝트 추진

2005년도 '노인참여형 문화예술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지방문화원에는 전문 문화기획 컨설턴트가 참여하여 문화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획자문, 현장 진단 및 평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사업 종료 후에는 평가를 통해 지방문화원 실버문화 프로그램 특화 및 지방문화원 발전에 대한 중기 운영전략이 수립되며, 이와 함께 금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도부터 전국 문화원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추진되는 「2005년도 노인참여형 소득창출 문화예술 시범사업」은 급속하게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방문화원 중심으로, 지역의 향토문화 전달자인 어르신들의 모습을 확대 발전시켜 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실버세대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개 문화원과 프로그램 소개

■예절교육단 강사 양성 워크숍
(대전동구문화원 / 042-623-7211)
관혼상제, 다도예절 등을 배우며 아파트별 예절교실 강사, 학교 방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어르신문화도우미
(광명문화원 / 02-898-9700)
공연, 전시장 등의 안내, 관람요령·예절, 에티켓을 배운다. 공연장, 전시장 등에서는 문화도우미로 활동한다.

■규방공예교실·칠보공예교실
(태백문화원 / 033-553-3161)
규방공예와 칠보공예를 배워서 우리

의 전통공예를 전승·계승한다.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충주문화원 / 043-847-3906)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배우고 '해설사' 실습을 하며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한다.

■다도에서 수제차 생산까지
(강진문화원 / 061-433-7373)
다도예절과 함께 야생녹차밭도 관리, 조성해본다. 다도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통영 전통연 제작 계승 과정
(통영문화원 / 055-646-3310)
통영 전통연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고 우리의 전통연을 계승한다.

■전통연 및 민속연 만들기 교실
(사천문화원 / 055-833-3163)
연만들기를 배우고 작품발표회(연날리기대회)를 개최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실버하모니키연주단
(김해문화원 / 055-336-2646)
-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방법을 어린이들에게 들려준다.
- 하모니카를 배워 전문 실버 연주단을 만들고 공연한다.

■짚풀공예제작 및 실버예술벼룩시장
(의령문화원 / 055-573-2034)
친환경재료를 재활용하여 공예품을 만든다. 제작품은 창의적인 실버예술 벼룩시장에서 만들어 판매한다.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세대간 소통 찾기 (산청문화원 / 055-973-0977)
서예·시조창을 배우고 학교에 나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강릉단오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해마다 단옷날(음력 5월 5일)을 전후해 열리는 전통 민속 축제인 농업과 어업의 풍요를 빌고 활발한 물자 교류를 위한 행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생업형 축제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삼국시대 이래로 1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민속축제인 ‘강릉 단오제(端午祭, 중요무형문화재 13호)’가 2005년 1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류무형유산 심사에서 인류 구전(口傳) 및 무형유산으로 선정됐다.

유네스코가 인류의 역사에 차지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인정 및 소멸 위기에 있는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01년부터 도입하여 격년마다 심사하여 선정하는 이 행사에서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와 제례악’ 2003년 ‘판소리’ 그리고 이번에 ‘강릉단오제’ 까지 선정된 것이다.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13호)는

특히 가면극과 농악 등 민속예술 기량을 한껏 뽐내고, 씨름과 그네 등 각종 놀이와 게임을 통해 주민이 신명몰이를 하는 연행·오락 축제라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해 왔다.

더더욱 1000년 역사를 거치면서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간직해온 강릉단오제가 난관을 딛고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이 “단오절은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중국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었었다. 지난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주장해 고구려 유적을 공동 등재한 상황을 또다시 맞았던 것이다.



2005년도 취임 지방문화원장 워크숍 열려

전국문화원연합회는 12월 8일부터 양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목련화홀에서 2005년도 취임 지방문화원장 워크숍을 가졌다. 금년도에 취임한 전국 지방문화원장 34명 가운데 28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성재 한신대 교수(전 문화관광부장관)로부터 '향토문화의 중요성과 지역문화원의 역할'과 김우중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지방문화원과 지자체의 성공적 협력 사례-동작

문화원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를, 이중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어제, 오늘, 내일'과 정호돈 강릉문화원장으로부터 '지역문화와 문화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또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에는 단국대 문예창작과 박덕규 교수의 사회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005 지방문화원 전문인력양성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역분권시대의 지방문화원 위상과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운영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문화기획과정을 개최했다.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코자 열린 이번 과정은 11월 23일부터 3일간(1차), 12월 14일부터 3일간(2차) 두 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경화장과 삼성화재연수원에서 '05지방문화원 전문인력양성 문화기획과정(A)'으로 개최됐다. 이어 12월 6일부터 3일간(1차), 12월 13일부터 3일간(2차) 문화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기획과정(B)을 열었다.

이번 전문인력양성과정에 참여한 강사진은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강준혁 원장의 '문화를 보는 시각' 지역문화 네트워크 권순석 사무국장의 '지역

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기획의 이해',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이각규 소장의 '지역축제의 기획과 성공 전략', 과천문화원 최종수 원장의 '지역문화 연구와 문화원의 역할', 전국문화원연합회 김이기 사무총장의 '문화원 회계실무의 이해와 실제', 공주대 사학과 이해준 교수의 '지역문화자원의 활용가능성과 미래',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김기상 이사장의 '특수법인의 개념 및 법적 지위', 문화관광부 지역문화과 양영술 사무관의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진흥방안',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이중인 소장과의 한국문화정보센터 이흥재 소장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문화원의 사명', 유성문화원 이춘아 사무국장과의 서천문화원 이경진 사무국장의 '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 성공전략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이루어졌다.

2005 전국향토문화연구가 큰잔치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립 중앙박물관 소극장에서 '2005년 전국향토 문화연구가 큰잔치'가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제20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문광부 이성헌 정책국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병익 위원장,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많은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상(대상)에는 황의호 대천여고 교감이 수상했다.

향토문화 논문부문 최우수상(문광부장관상)에는 서울 마포구청 이준범

씨가, 우수상에는 조광환 정읍 학산여중 교사와 강원대(강원지역문화연구회) 그리고 향토문화 자료부문 최우수상(문광부장관상)에는 심현용 울진군청 학예연구사, 우수상에는 안길정(성균관대 사학과 석사과정)씨가 수상했다.

향토문화공로부문 특별공로상에는 허백영 의령향토사연구회장(전 의령문화원장)이 수상했다.

제1부 수상작 발표에 이어 향토사 자료의 발굴 수집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관장의 주제발표와 생활사 자료를 통한 지역문화의 복원에 대해 정승모 지역문화연구소장으로부터 주제발표를 듣고 김현영 문학박사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 전문가 심화교육

2005년 복권기금 지원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노인 대상 소득창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지방문화원 향토사 전문가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지방문화원에서 추천한 60세 이상의 향토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가졌다.

단국대 엄기표 교수, 한양대 김남조 교수, 서울대 전봉희 교수 등 14명의 강사진이 향토사 길잡이, 문화 관광 인문지리, 고적답사 실무, 향토사가 전문가를 위한 관광법규 정책 및 민속현장의 설명기법 등 다양한 교육일정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병행하여 130명이 수료했다.

새터민 희망이야기 “반갑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지회장 한근수)는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 유성구 소재 목원대학교 대덕문화센터 콘서트홀과 야외 행사장에서 새터민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새터민(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 탈북 귀순인사들의 모임)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대전시민들과 일체감을 갖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새터민 희망이야기 ‘반갑습니다’”라는 공연에 앞서 평양만두, 아바이 순대, 녹두지짐, 함경도 만두, 평양 약밤 등 북한 음식 나눔축제로 환영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대전 시민 1천 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

웠다.

대전YMCA 이충재 사무총장의 사회로 새터민들이 마련한 여성4중창 ‘반갑습니다’와 춤 ‘아리랑’, 가족중창 ‘고향의 봄’, 김병녀 할머니의 편지글 낭송 등 참석한 모든 시민들에게 분단의 현실을 일깨워 주는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다.

이 밖에도 가수 권진은·강산애 씨 등의 축하 공연과 한근수 지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고향을 떠나 힘들고 외롭게 사는 새터민들이 연말을 맞아 즐겁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면서 ‘이 축제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북한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주고, 실향민과 새터민들에게는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문화원, 시인 정지용 시비 일본 모교에 세워

충북 옥천 출신 ‘향수(乡愁)’의 시인 정지용(鄭芝溶) 선생의 시비가 모교인 일본 교토(京都) 도시샤(同志社) 대학에 세워졌다.

옥천문화원(원장 이인석)과 정지용기념사업회(회장 오양호)는 12월 18일 도시샤 대학 교정내 윤동주(尹東柱) 시비 옆에 지용 시비를 세웠다.

이 대학은 지용 선생이 유학시절 대표작 ‘향수’를 발표하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윤동주 시인

의 모교이기도 하다.

옥천문화원은 지난 5월 제18회 지용문학축제를 찾은 대학 관계자와 시비 건립에 합의했다. 조각가 신동수씨에 의뢰해 고향 옥천에서 생산된 돌로 가로 1.8m, 세로 1.2m 크기의 반원형의 시비를 만들었다. 교토 시내를 관통하는 압천(鴨川·가모가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지용 선생의 학창시절 작품이 한글과 일본어로 나란히 새겨졌다.

안산문화원 신축 이전



안산문화원(원장 이정태)은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586의 1번지에 대지 2,400여평 건평 650평(지상 3층) 규모

의 원사를 신축(총 건축비 44억원)하고 12월 16일 오후 2시 3층 다목적 문화사랑방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당 연합회 권용태 회장과 안산시 송진섭 시장, 안산시의회 장동호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장경수 의원과 제종길 의원 등 내외귀빈과 경기도내 문화원장 및 많

은 문화가족이 참석했다.

이정태 원장은 '새 원사에는 향토자료관과 문헌자료실, 기획전시실, 향토사연구소, 문화학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부속 건물로 안산지역의 전통초가, 연자방앗간, 물레방아사간, 대장간 등의 문화공간은 안산시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외래관광객 600만 돌파 '눈앞'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에 따르면 12월 20일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객이 지난해 방한객수 582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외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2004년의 경우 '겨울연가'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35.5%의 경이적인 증가를 나타내면서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한 581만8138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가 금년 4월까지 계속되던 중 독도문제와 일본교과서 문제 발생으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5월 이후 일본 관광객이 두 자리 수 감소세로 반전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겨울연가'에 이어 '대장금'으로 이어지는 한류 열풍을 활용, 기존의 드라마 촬영지 위주의 한류관광에서 한국음식 및 전통문화를 연계한 관광마케팅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뉴스>

참전용사 ‘할아버지 이야기’ 가슴이 찡해요

김미향 | 포항문화원 간사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문화원에서 간사직을 맡고 있는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2박 3일간 실시한 복권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할아버지가 우리 문화원으로 보내 주신 편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이번 사업은 2005년도 제2단계 복권기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6, 25 한국전쟁 당시 휴전선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실전을 겪은 관내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으로 분류되어 어려운 형편으로 본인이 겪었던 격

전의 현장을 한번도 찾지 못하고 여생을 보내고 있는 참전용사를 선정하여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변해진 전투현장과 안보현장을 탐방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쌓은 전공을 체험시키고자 실시되었는데요.

이 편지를 받고 보니 사업성과가 아주 성공적이란 생각이 들며 지방문화원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보람도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편지를 보냅니다. 가슴이 찡해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사자는 흙이 되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꼭 한번 가 보고 싶었던 최전방 접전지역을 구석구석 관람시켜주시고, 노병에게 배려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화지구 오성산 전투부터 시작하여 백마고지에서 6년동안 병역의무를 마치고 귀향하였습니다. 그 후 40여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때의 참혹함이 꿈에 보여 깜짝 놀라 일어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백마고지 우측 300미터 정도의 나지막한 돌산으로 이루어진 고지는 당시 폭격을 받으면서 밀가루처럼 부서져 무수한 병사들이

포화 속으로 묻혔습니다. 피아간에 전사자가 태산같이 쌓여서 흙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 보고 싶었던 곳을 보고 나니 그때의 생각으로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그때의 젊은 피의 댓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책으로라도 엮어서 후세에 전하고 싶지만 마음만 앞서네요.

마지막으로 문화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배려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 25 참전 노병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체험학습을 마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학교로 향했다. 오늘이 바로 1박2일 동안 '문화 체험'을 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학교에 이른 시간부터 와서 기다렸다. 마음이 콩닥 콩닥 뛰었다. 버스를 타고 당진 문화원으로 향했다. 그리기와 글짓기대회 나갈 때 몇 번 앞을 지나간 적이 있지만 건물 안에 직접 들어가 본적은 처음이다. 문화체험을 하는 이유와 1박 2일간의 일정에 대하여 당진문화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면천. 우리고장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 면천에 왔다. 면천의 '영탑사'라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절에 왔다. 주변의 나지막한 산에 오르니 바위위에 세워진 영탑사 7층 석탑이 있었다. 가을에 영답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단풍이 물들고 코스모스가 피어서 영답사와 그 주변의 산들이 아름답게 어울어져 있었다.

코스모스와 주변의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즐기면서 '면천읍성'에 도착하였다. 돌로 쌓은 성이라고 한다. 성의 돌은 모두가 기제로 만든 것처럼 반듯 반듯했다. 면천읍성에서 조금 더 가서 1,100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있는 면천 초등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에 있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행

나무를 보고는 내 생각이 빗나간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데 면천초등학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고 나무와 꽃들이 잘 가꾸어져 있었다.

다음은 기지시줄다리기 전수관에 갔다. 전수관에서는 우리가 직접 짚풀을 돌려 가면서 줄다리기 줄도 만들어 보고, 손으로 새끼도 꼬아 보았다. 내가 끈 조그만 새끼줄이 모여서 30m나 되는 거대한 줄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다. 실제 줄의 30분의 1로 축소한 줄로 청팀 백팀을 나눠서 줄다리기를 했다. 우리 대표인 오빠가 가위바위보를 잘해서 이긴 것 같다. 줄다리기를 가르쳐 주시던 전수회회장님께서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이제 전수관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우리를 친 손자손녀같이 가르쳐 주셨던 할아버지들과 헤어지게 되고 내가 만든 줄을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새끼줄을 나무에 걸어두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숙박지인 용인 자연수련원이다. 그 곳은 방도 넓고 시설도 좋았다. 자유시간엔 공기를 했다. 평소에는 재미없던 공기도 다른 장소에서 하니깐 너무 재미있게 느껴졌다. 밥을 먹고 우리는 협동단결을 위해서 도미노 체험도 했다.

다음날은 서울 아인슈타인 특별전에 갔다. 올해가 바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지 100주년 된 해이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

가호연 | 당진 초락초등학교 5학년 1반

은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한 시대에 과학자들도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지?' 하며 놀란다고 한다. 아인슈타인 특별전에서는 우리가 과학을 쉽게 이해하게 만지고 직접 놀이기구를 타는 등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냥 흥미 없이 보고 지나치는 박물관과는 차원이 달랐다. 점심을 먹고 서울과학관에 갔다. 과학관도 거의 그냥 보는 것이지만 쉽게 이해가 되고 재미있었다. 1층과 2층, 그리고 3층으로 층이 나누어져서 참 재미있게 구경했고, 중간 중간 마다 연극보는 곳과 놀이하는 곳이 있어서 재미있었다. 특히 맨 위층에는 탱탱볼 만들기, 비행기 만들기 등을 하는 체험 공간이 있었다. 지루한 박물관과 과학관이 이렇게 재미있고 이해가 쉬운 우리의 놀이터로 변할 줄은 몰랐다.

당진문화원에서 보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체험학습을 도와주신 당진문화원장님과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진을 찍어 주시고 길을 안내해주신 아저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가 졸업하기 전에 그 곳을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이번 1박 2일 체험학습을 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



이대근 춘천문화원장 효령대상 수상



당 연합회 강원도지회장과 춘천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근 원장이 11월 2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호도부문으로 제8회 효령대상을 수상했다. 이 원장은 양구군수, 원주군수, 강릉시장 등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역 노인정책에 각별한 관

심과 지원을 함으로써 경로 효친사상의 실천에 기여했다. 한편 춘천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문화원의 특별사업으로 경로 효친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왔다. 지난 여름 102세로 별세한 고령의 노모를 수발 들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점이 높이 평가돼 가족과 친지, 효령대군파 종친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으며 수상했다.

양중해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지회장 덕산문화상 수상



당 연합회 제주지회 양중해 지회장이 12월 17일 오후 3시 제주체육회관에서 덕산문화재단이 제정한 제6회 덕산문화상을 수상했다. 덕산문화상은 제주출신 사업가인 덕산 김명신씨가 제주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과 향토문화창달, 사

회복지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해 오는 상이다. 양 지회장은 43년간 교직에 봉사해 왔으며 문인협회와 제주 예총, 94년 제주문화원을 창설했으며 향토사료집 발간을 비롯해서 시집, 시조집, 소설, 수필집 등을 출판했다. 특히 그의 시로 작곡된 가곡 '떠나가는 배'는 전국적으로 애창곡이 됐다.

인천 남구 학산문화원 유제환 원장 별세

유제환(柳濟煥 74세) 남구 학산 문화원장이 11월 30일 새벽에 자택에서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 했다. 고인은 인천 중앙극장과 유한영화사, MAC Line 극장 대표로 있으면서

인천광역시 극장협회 회장으로 재임했다. 2003년 9월 초대 남구 학산문화원장으로 선임돼 문화 예술사업에 헌신해 왔다.

전국문화원 새로운 얼굴

대구 수성문화원장 류형우 씨 선임



대구 수성문화원은 지난 9월 27일 예지앙 갤러리 아트홀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초대 원장에 류형우(柳瑩佑 45)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어 11월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수성구 김규택 구청장과 수성구의회 홍해근 의장,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류 원장은 경북대 의대 및 동 대학원을 마치고 현재 시지 파티마 여성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울산 남구문화원장 윤성태 씨 선임



울산 남구문화원은 10월 25일 남구문화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윤성태(尹聖泰 64)씨를 만장일치로 차기 원장에 추대했다.

11월 1일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캐슬웨딩'에서 남구 이체익 구청장과 남구의회 김두겸 의장, 전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이두철 지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및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했다.

신임 윤성태 원장은 동아대 농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지방부이사관)을 거쳐

울주문화원 사무국장과 울산시지회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동두천문화원장 안민규 씨 선임



동두천문화원은 8월 25일 문화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4대 원장에 안민규 부원장을 만장일치

로 추대했다.

10월 27일 동두천 유림호텔에서 최용수 시장과 김경차 시의회 의장, 그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과 당 연합회 권용태 회장을 비롯한 경기지역 문화원장 등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현재 동두천시 수의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 총재를 비롯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장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동두천문화원 이사와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안민규 원장은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보성문화원장 정형철 씨 선임



보성문화원은 11월 22일 문화원 3층 공연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정형철씨를 추대하여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취임식에는 하승완 보성군수와 임영수 보성군의회 의장, 박승주 보성경찰서장 등 주요 기관장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로 선임된 정형철 원장은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차생산협회 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으며 보성문화원 이사와 향토문화연구소장을 맡아 오고 있었다.

청도문화원장 박영욱 씨 선임



청도문화원은 10월 24일 문화원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박영욱(朴永昱 66)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10월 28일 지역 기관장과 주요 단체장을 비롯해서 많은 문화원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박영욱 원장은 한국방송통신대와 경북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고 청도군 기획실장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리 _ 서희정 기자

우리문화 구독문의 02)704-2311



잊혀져 가는 옛 집을 찾아서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려 지어진 우리나라 옛 집들은 계절의 온도 변화와 일조량을 따져 터와 방향을 잡았다. 지붕의 각도와 높낮이도 자연을 고려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인 작품들이다. 하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현대화 물결에 밀려 더 이상 우리 옛 집을 찾아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정겨움과 선조들의 지혜가 베어있는 옛 집과 함께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통가옥의 변형된 형태의 집들을 알아보았다.

굴피집

산간 지방에서는 굴피나무 껍질을 벗겨서 지붕을 덮는다. 이십여년 이상 자란 나무의 껍질이지만 크기를 일정하게 벗겨 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덮은 지붕을 보면 마치 누더기를 걸친 것처럼 심한 불균형을 이룬다.

굴피는 대기가 건조해지면 바짝 오므라 들어서 균대균데 하늘이 보일 정도가 되지만 비가 내리든지 하여 습도가 높아지면, 이내 늘어나서 틈을 메운다. 이음새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로 지질러 둔다.

굴피 지붕의 수명은 매우 긴 편이어서 '기와 만 년에 굴피 천년'이라는 말이 전해져 오기도 한다.

귀틀집

귀틀집은 목재가 풍부한 산간 지대의 주민들이 짓고 살던 원시 주기의 한 가지이다.

굵은 통나무를 '井'자 모양으로 귀를 맞추어 층층이 엮고 틈을 흙으로 메워 지은 집이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벌어진 틈에는 진흙을 발라 막고 벽체가 완성되면 느리개를 놓고 이에 산자를 깐 뒤에 흙을 발라 천장을 삼는다.

이 위에 지붕틀을 덧씌우는데 귀틀집의 지붕은 지붕에는 너와를 덮으며 이것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균대균데에 돌을 얹거나 통나무를 띄엄띄엄 걸쳐둔다. '삼국지 동이전 변진 조'에 '나무를 옆으로 뉘어 쌓아 올려서 마치 감옥처럼짓는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집의 역사가 매우 오래됨을 알 수 있다. 강원도와 경남 등지에서 볼 수 있었다

까치구멍집

집을 옆에서 보았을 때 용마루 양쪽 끝 아래쪽에 구멍이 나 있어 이름붙여진 까치구멍집은 겨울에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폐쇄적인 겹집 형태로 지은집을 말한다.

안방·사랑방·부엌·마루·봉당 등이 한 채에 딸려 있고, 앞뒤 양쪽으로 통하는 양통집의 속칭이다. 집안에서 취사와 난방이 이루어지므로 연기가 집안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 연기구멍으로 낸 것이 이 까치구멍이다.

초가지붕을 이을 때 구멍의 위쪽을 약간 덮듯이 올려세워 비가 흘러들지 않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서민 가옥이던 까치구멍집은 경북 북부지역 산간지방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해안 산간 지방에서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있다.

기와집

중국에서는 기와를 춘추 전국시대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우리 나라에는 언제부터 쓰이게 됐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삼국사기 신라 본기 지마니 사금 11년 조"에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꺾이고 기와장이 날렸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우리 나라에서는 기원 전후 한 시기에 궁궐이나 큰 건물에 기와를 덮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서기"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조 건물이라고 하는 법륭사를 지을 때, 백제에서 기와 박사 네 사람이 일본에 건너 가서 기와를 구어 주었다고 하므로 7세기 경에는 기와를 굽는 기술이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질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었던 듯하다.

너와집

강원도에서는 너와집을 느와, 또는 능애라고도 부른다. 2백 년 이상 자란 소나무 토막을 길이로 세워 놓고 도끼로 쪼갠 작은 널판인 너와는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가로 2~30 센티미터, 세로 4~60센티미터이며 두께는 5센티미터 내외이다.

지붕의 용마루 쪽으로부터 끝을 조금씩 물리면서 덮어 나가며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균대균데에 돌을 얹어 둔다.

너와 한 장의 수명은 5년 내외로 기와 지붕을 수리할 때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썩은 것을 갈아 내고 새것으

로 바꾸어 끼울 수 있다.

지붕을 덮을 때, 방 천장에는 느리개를 30센티미터쯤의 너비로 가로 놓고, 이를 중심으로 잔나무를 촘촘하게 붙여 천장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는 굴뚝으로 빠지지 못한 연기가 나와 사이로 뿜어져 나오므로, 이를테면 지붕이 불에 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초가집

벚짚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 안의 공기가 여름철에는 내리 쬐는 햇볕을 감소시키고, 겨울철에는 집안의 온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걸이 매끄러워서 빗물이 잘 흘러 내리므로 두껍게 덮지 않아도 스미지 않아 누구든지 이를 쉽게 덮을

수 있어 편리하다.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의 이러한 초가집은 한 해에 한 번씩 덧덮어 주므로 집에 각별한 치장을 하지 않아도 거의 언제나 밝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붕의 물에는 매우 완만하기 때문에 농가의 마당이 좁을 때에는 고추 따위의 농작물을 널어 말리며, 천둥 호박이나 바가지의 덩굴을 올려서 지붕을 밭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통가옥의 장점을 현대건축물에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가옥들

목재의 질감과 흙벽의 부드러움을 살린

심벽집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심벽을 친다하여 붙여진 심벽집은

전통적인 초가 구조방식이다.

목재를 최소화하여 가옥의 뼈대를 세우고 바닥, 천장, 벽 등 가옥의 주요부분을 흙으로 바르는 방식으로 자재의 저렴성이 돋보인다.

또한 구조를 이루는 목재가 내외부로 돌출되어 목재의 수려한 질감과 흙벽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목재로 이루어진 기둥, 보등의 결합부위에 가옥의



하중이 집중되어 구조적 강도를 충분히 감안해야하고 모든 목재 부자재가 구멍을 파고 장부를 만들어 맞추는 등 전문적인 목수일이 많이 요구되어 비용절감을 살리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틀집

토담집(흙으로만 쌓은 담에 지붕을 올린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담틀을 이용하여 토담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한 집이다.

거푸집을 세우고 흙, 마사, 모래, 편회를 되게 배합하여 다져넣어 벽을 올리는 이 집은 건축비와 일반관리비가 저렴하고 흙벽이 두꺼워 냉난방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스스로 살아 숨쉬는

흙벽돌집

황토를 짚과 섞어 반죽하여 나무틀에 넣어 찍어내는 재래식 흙벽돌은 민가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소재로 갈라짐이 많고 손이 많이 간다는 단점으로 사라지는 듯 하였으나 최근 압축사출 공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흙벽돌과 달리 미장을 하지 않고도 매끄러운 벽면을 만들어 공사의 번잡스러움을 줄일 수 있고 보다 향상된 내력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흙벽돌집은 심벽집, 토담집과 같이 흙벽이 스스로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여 여름의 고온다습과 겨울의 저온다습을 막음으로서 실내를 쾌적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천연자재의 특성을 살린

빈지널집


일정한 간격으로 흙을 판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널을 끼워 흙으로 채워 다지는 방법으로 지은 집이다.

외기에 손상되기 쉬운 흙담을 목재널로 감싸 가옥의 내수성과 보존성을 높이고 목조주택 특유의 자연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귀틀집과 마찬가지로 건식공법으로 사계절공사가 가능하고 합판과 인공단열재를 사용하여 냉한대식 밀폐형 구조를 지향하는 서양식 경량식 목조주택과 달리 천연자재만을 사용하여 가옥의 구조적 성능은 물론 환경성과 주거의 질을 높인 집이다.

출처 : <http://blog.naver.com/totptkd/140016167582>

글 _ 김보라 기자



수고한 당신,
12월 31일

겨울바다로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끝을 바다에서 보낸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시작을 바다에서 맞는다. 끝은 시작과 맞닿아 있다. 뫼비우스의 띠에 놓인 삶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끝을 향해 달려 왔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진다. 동해의 일출과 서해의 낙조가 다른 그림인 듯 해도 흐르는 시간을 잠재워 놓고 보면 그것은 같은 그림이다. 한 해를 정리하는 아쉬운 마음이 어제의 일인 듯 해도 그것은 곧 내일의 바람인 것이다. 아쉬움도 바람도 하나로 안고 있는 겨울바다엔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많다.

화려한 새해 설계는 동해 첫 해를 바라보며

누구든 겨울 바다 하면 동해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것도 수평선 넘어 반쯤 걸린 이른 새벽 여명을 생각하며 말이다.

그러한 그림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라면 경포 바닷가와 정동진을 찾으면 된다.

그곳이 어디든 해돋이 감상 가능한 곳이 바로 경포해안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녹두정의 해돋이는 경포팔경 중 제 1경으로 손꼽힌다. 경포해수욕장에 맞닿아 있는 강문 지역 역시 일출과 월출로 유명하다. 그만큼 묵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기엔 제격이다. 이른 새벽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출의 경외로움엔 절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새로운 용기가 솟구쳐 오름을 느낄 수 있다.

모처럼 윽긴 발걸음이라면 경포호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열화당, 선교장 등의 문화재도 함께 둘러보면 좋을 듯 하다.

선교장은 조선 말기의 전형적인 사대부 저택으로 안채, 사랑채, 별당 정각, 행랑채 등 민가로서 거의 모자람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집터가 뱃머리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선교장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하며, 본래 전주 사람 이내번이 집터를 잡아 집을 지었다고 한다. 출판물 아는 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열화당 출판사'도 이 집안과 무관치 않으며, 실제 본 주택의 사랑채 이름이 열화당이다.

선교장을 둘러보았다면 그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허균, 허난설헌의 생가터도 한번 방문해 볼 직 하다. 허균 하면 최초의 국문소설 홍길동전의 지은이 이며, 허난설헌은 신사임당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류시인으로 바로 허균의 누이이다. 강릉에

서 유명한 초당순두부마을에 인접해 있는 허균, 허난설헌 생가를 돌아보노라면 그들의 문학적 감성이 전이 되어 올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만큼 집 구조가 단아하고, 뒷 뜰의 풍경은 차분하며 온화한 느낌마저 준다.

동해안 곳곳에 숨겨진 눈요기 장소들

망망대해의 해오름을 기대한다면 강릉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정동진으로 달려가면 된다. 드라마의 추억으로 국민관광지화 된 곳이지만, 이미 그 전부터 구전으로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알려진 곳이다. 강



• 정동진의 겨울 아침풍경

릉에서 정동진으로 향하는 길목엔 한번쯤 들려갈 만한 곳이 많다. 하슬라아트월드가 그렇고, 2001년 9월에 오픈한 통일공원이 그렇다. 그중 통일공원은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4만2천평의 터에 들어선 304평의 통일안보 전시관과 4천 평의 공간에 설치한 함정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함정 전시관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4,000평의 부지위에 건설되었으며, 그곳

에는 1996년 9월에 침투하여 세인의 주목을 끌었던 북한 잠수정과 함께 우리 해군의 퇴역함정이 전시되어 있다.

퇴역함정뿐만 아니라 북한 침투 잠수정의 실내까지 견학이 가능하여 자녀들의 산 교육장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특히 북한 잠수정 실내를 들어가 보면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25명이나 되는 간첩을 태우고 있을 수 있었는지 실로 놀랍기까지 하다. 물론 25~30명까지 승선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잠수정 내부는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좁아 보인다.

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동쪽에 있는 나루터란 뜻으로 장엄한 해돋이로 유명하다. 특히 정동진 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기 까지 하다.

번잡함이 싫다면 서해로 떠나라

바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여름날에 찾음이 맞

다. 그러나 바다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겨울날에 찾음이 옳다.

특히 번잡함을 벗어나 새해의 차분한 계획을 위해서라면 서해의 철 지난 바다가 제격이다. 그 중에서도 만리포 해수욕장은 서해의 넉넉함으로 호연지기를 느끼게 해준다.

밤 늦은 시간에도 만리포 백사장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족히 100미터는 넘게 물이 빠진 바닷가를 삼삼오오 수많은 사람들이 달빛을 벗삼아 걸으며 미래를 설계한다.

이름 아침에 그 족적은 밀물과 함께 사라지지만, 밤사이의 신선한 기억은 오래오래 추억으로 남는다.

철지난 해수욕장엔 인정만이 남아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도 가능하고, 붐비지 않고 고요한 서해의 풍경은 어느새 삶의 이정표를 새로이 쓰게 한다.

만리포해수욕장의 기원을 잠깐 살펴보면, 조선시대 중국의 사신을 전송하기 위하여 수중 만리 무사항해를 노래한 것이 유래가 되어 '만리장별'이라 부르게 된 것이 1955년 해수욕장을 개발하면서 만리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특히 만리포해수욕장은 대천해수욕장, 변산해수욕장과 함께 서해안 3대 해수욕장으로 불린다.

이 외에도 만리포해수욕장 주변으로는 익히 알려진 천리포해수욕장, 파도리 해수욕장 등 차로 20~30분 거리에 연이어서 많은 해수욕장과 갯벌이 위치하고 있다.

그 어느 곳이건 철 지난 서해바다



• 서해의 낙조

의 풍경을 가슴 시리도록 담아내고 있다. 텅 빈 백사장에 살포시 얹혀있는 주인 잃은 발자국은 무명 사진작가의 렌즈속에 정지화상으로 담겨지고, 빛바랜 사진이 되기까지 그 것은 살아 숨쉬는 생물과도 같이 이 한 해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만리포 주변으로는 귀하한 한국인인 민병갈(밀러) 씨가 조성한 천리포 수목원이 위치한다.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일반인은 관람이 불가한데, 이곳에는 미국 등 전세계 60여 개국으로부터 들여온 6,500여종 이상의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과히 식물들의 지상낙원이라 불릴 정도다.

내면의 '파도 소리'에 귀기울이는 여행을 ...

그곳이 동해이건, 서해이건 드넓은 바다와 함께하는 삶의 여정은 그만큼 여유롭다.

때론 혼자가 되어, 때론 가족과 함께 새롭게 열리는 세상에 힘찬 도전의 깃발을 올려라.

그러나 그 치열한 열정만큼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한걸음 물러날 줄도 알아야한다. 마음의 귀를 한껏 열고 동해의 그리고 서해의 파도소리를 조용히 들어보라.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타협하며 나도 모르게 잊어온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가 마음 깊이 밀려올 것이다. 그 소리가 진실한 자신의 목소리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여행은 참된 여정이다.

글 · 사진 _ 김효용 | 여행작가



• 허균, 허난설헌 생가



• 통일동산에 있는 북한 잠수정



• 통일동산에 있는 퇴역전함 모습



• 아흔아홉간의 선교장 모습



침선장 박광훈의 오방색 아이옷 | 다섯수레 / 글 박광훈, 이민주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침선장 박광훈 선생에게 전통 한복 만드는 법을 배우는 책이다. 옛날 어머니가 딸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듯 바느질하는 자세부터 옷감 고르는 법, 옷감에 따라 달라지는 바느질법, 계절과 나이에 따라 격식에 맞게 옷을 짓는 법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쉽게 배울 수 있게하여 전통 한복의 맥을 이어가도록 기획되었다. 한복 만들기를 익히다 보면 어렵지 않게 한복의 깊은 멋과 바느질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구수한 큰맛 | 다홍미디어 / 글 고유섭, 역은이 진홍섭

고유섭 선생 생전에 나해한 한문투로 발표되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미술사에 관한 글을 쉬운 한글로 풀어 주고, 발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출처, 어려운 한문 원전의 해석, 전문용어 해설, 해당 도판 자료의 수록 등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미를 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특히 한문투에 약한 젊은층들이 부담없이 선생의 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 솔 / 글 오주석

우리 옛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문화유산 안내서. 김명국의 <달마상>, 안견의 <몽유도원도>, 윤두서의 <진단타려도>, 김정희의 <세한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홍도의 <씨름>과 <무동> 등 12편의 명화가 간직한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 그림들이 왜 좋은지, 왜 의미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눈에는 익숙한 그림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인물에 대한 상세한 주를 덧붙여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 | 한길사 / 글 윤신향

올해로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음악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외세의 정치·경제 압력과 한국사회의 정체적 위기를 작곡적 중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윤이상의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이 책은 그가 인생의 절반씩을 두 세계에서 살았던 문화적 위치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책 말미에 수록된 윤이상 연보와 작품 연보, 음반 연보 등은 윤이상의 삶과 작품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학2 | 통나무 / 글 삼암 표영삼

동학은 조선문명이 유교와 불교를 통해 추구해온 인문주의와 민본주의를 이념 속에서만이 아닌 현실의 정치·사회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구현하고 완성하고자 한 노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동학』 제2권은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교조 최수운의 죽음 이후 교단을 책임진 해월 최시형의 고난에 찬 행적과 교단의 재건·발전 그리고 교조신원운동과 갑오년 고부에서의 전봉준이 주도하는 봉기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 본다. 3권 완간으로 제2권까지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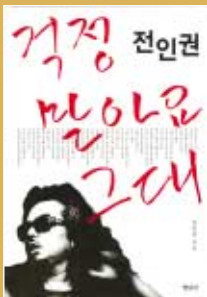
풀싸움 | 언어세상 / 글 이춘희 그림 김호민

‘풀싸움’은 산과 들에서 아이들 둘 또는 여럿이 편을 갈라 풀을 뜯어 즐기는 놀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주변에 흐드러지게 자란 우리의 들풀을 뜯어 내기를 하는 놀이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풀이름을 정확히 많이 알거나 풀을 많이 뜯을 수록 유리하다. ‘풀싸움’을 하기 위해 자연을 뛰어다니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과 친밀감을 느끼며 정서적·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풀싸움’과 같은 옛 아이들의 놀이와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 꿈꾸며 찾는 참된 교육의 한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가슴에 새겨라 | 꿈이있는세상 / 글 이이, 역은이 한문희

율곡 이이 선생이 42세 때 지은 ‘어린 사람이 깨우쳐야 할 소중한 글’이라는 뜻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우리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책이다. 격몽요결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학자들을 위한 입문서로, 뜻을 세움(입지), 나쁜 습관을 없앴(혁구습), 몸가짐(지신), 독서, 부모님 섬김(사친), 상제, 제례, 집에서의 생활(거가), 사람들과의 교제(접인), 처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가슴에 간직하여야 할 소중한 구절을 뽑아 공부의 참뜻과 함께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율곡 이이 선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다.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 | 청년사 / 글 전인권

열광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인권의 삶과 음악 토양을 되돌아 보며 70~80년대 대중 음악사의 단면을 들여다 보는 책이다. 1부 ‘1972~1985’와 2부 ‘다시 1972~2005 지금’에서 전인권의 삶과 음악이 가감 없이 그려진다. 더불어 들국화 시절의 사진, 최근 사진들과 함께 그가 작사한 가사들, 틈틈이 기록해 왔던 시와 단상들을 함께 실어 그가 갖춘 다양한 면모들을 담았다.

엔틱 가구 이야기 | 호미 /글 최지혜

엔틱 카구의 탄생과 계보를 밝힌 「엔틱 가구 이야기」는 ‘엔틱 antique’ 곧 서양의 고가구에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엔틱 가구의 탄생과 계보를 밝히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엔틱만의 독특한 빛깔과 형태의 매력을 설득력있게 전한다.

할머니의 쌀통

어릴적에 할머니의 부엌 한 쪽을 차지하던 오동나무 쌀 뒤투는 뚜껑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육중한 자물쇠가 걸려 있어 쌀을 퍼낼 때마다 마치 보물을 꺼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더러는 뒤투 속으로 팔을 깊숙히 넣을 때 쌀 귀신이 팔을 잡아다닐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무섭기도 했지만 싫지 않았던 뒤투 대신에 어느 날씬하고 하얀 플라스틱 ‘삼익쌀통’이 들어왔다. 옛 뒤투에 대한 시원 섭섭함은 잠깐이고, 우리 가족 모두는 새 것을 마냥 좋아라 했다. 유럽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면 나는 으레 ‘직업병’이 도져서 그 집에 어떤 엔틱이 있는지 두리번거리곤 한다. 식탁 위에 근사한 엔틱 접시나 적어도 몇 십년은 썼을 법한 은 포크나 나이프라도 놓이면 특별한 대접을 받는 듯해 으쓱해지기도 한다. 주인은 내 관심사를 배려하여 자신이 소장한 엔틱의 내력을 일러 준다. 대체로 할머니나 가까운 친척에게서 물려받은 물건이고 때로는 엔틱에 관심이 많아서 구입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엔틱을 통해 자신의 문화 소양을 슬쩍 자랑하기도 한다. 엔틱은 큰 집이나 자동차보다는 분명 ‘꺼리’가 되는 자랑거리이다. (본문 20~21 페이지 중)



졸부의 집엔 엔틱이 없다

‘졸부’는 단순히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 돈은 많으나 이른바 ‘콘텐츠’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졸부는 남에게 과시하려는 욕구가 무척 강하다. 졸부들에게 걸여되어 있는 콘텐츠에는 아마도 지식, 명예를 비롯하여 예술, 인문적 소양까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의 결여를 짧은 기간에 보완하기란 매우 어렵다. 졸부들이 돈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애쓰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 또 웬만큼은 짧은 기간 안에 채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은 바로 예술, 인문적 교양이다. 특히 예술 부분의 교양 가운데 ‘없음’안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살아가면서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기에 졸부는 결코 안목이 높을 수가 없다. 안목이란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사물을 보아서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술품에 대한 안목은 결코 하루 아침에 길러지지는 않는다.

수십억에 이르는 큰 집에 살면서도 졸부는 제대로 된 그림 한 점 걸지 않는다.

인문적 교양도 마찬가지다. ‘졸부’의 책장에는 단행본보다는 전집이 훨씬 많이 꽂혀 있어서 겉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읽은 책은 거의 없다. 엔틱이 갖는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소장하는 이들과는 달리 졸부의 집에서 엔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문 23~24 페이지 중)

다시찾은 백제문화 이야기 | 고래실 / 글 엄기표

우리는 고구려에 대해서는 광활한 땅을 호령하다 멸망한 나라로, 좁은 땅을 가진 우리 이 자체만으로도 고구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백제 역사를 밝히는 작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난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백제가 좁은 땅에 그것도 한성에서 웅진과 사비로 밀리면서 살다가 패망한 나라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최근에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백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보다 훨씬 강하고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베일에 가려진 백제 역사와 백제 사람들의 문화를 하나씩 벗겨주고 있다.



백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썼을까?

■ 언어는 민족의 지역적 기반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언어는 민족의 범위와 그 민족의 이동 경로를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같은 글자를 사용하고 말이 통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지역적 기반을 확인시켜 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북한을 넘어 멀리 중국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과도 통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글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한글과는 분명히 달랐다.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도 한자를 모르면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말은 지금과 같았을까 달랐을까? (이하생략)

■ 삼국시대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였다.

중국 역사서에는 백제의 언어와 관련하여 '지금 사용하는 백제의 언어와 복장이 고구려와 거의 같다.'라고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양서』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중국 역사서인 『남사』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백제와 고구려가 나라는 달랐지만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서로 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통역관을 두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 사람들처럼 말이다. (이하생략)

(본문 30~31페이지 중)

다가오는 丙戌年 **사람과 개** 이야기

병술년

개띠 해는 육갑(六甲) 가운데 갑술(甲戌), 병술(丙戌), 무술(戊戌), 경술(庚戌), 임술(壬戌) 등으로 순행한다.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戌)는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月)로는 음력 9월에 해당하는 방위신이자 시간신이다. 개(戌)는 이 방향과 이 시각에 오는 사기(邪氣)를 막는 동물신(動物神)이다.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흔히 접할 수 있고, 인간과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동물은 개이다. 그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하여 사람을 잘 따르며, 개는 후각과 청각이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하다. 또 자기의 세력 범위 안에서는 대단한 용맹성을 보인다.

특히 주인에게는 충성심을 가지며, 그 밖의 낯선 사람에게는 적대심, 경계심을 갖는다. 아주 오랜 시기를 같이 살아온 개는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이다. 설화에 나타나는 의견(義犬)은 충성과 의리를 갖춘 우호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을 한다.

의견 설화와 의견 동상, 의견 무덤 등의 다양한 이야기거리는 전국에서 전승된다. 그런가 하면 서당개, 맹견, 못된 개, 미운 개, 저질 개, 똥개, 천덕꾸러기 개는 비천함의 상징으로 우리 속담이나 험구(욕)에 많이 나타난다. 동물 가운데 개만큼 우리 속담에 자주 등장하는 경우도 드물다. 개살구, 개맨드라미 등 명칭 앞에 ‘개’가 붙으면 비천하고 격이 낮은 사물이 된다.

다양한 전설 전해져 내려와 ...

예로부터 개는 집 지키기, 사냥, 맹인 안내, 수호신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잡귀와 병도깨비, 요귀 등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흰 개는 전염병, 병도깨비, 잡귀를 물리치는 등 벽사 능력뿐만 아니라,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게 하고, 미리 재난을 경고하고 예방해 준다고 믿어왔다. 『삼국유사』에 보면 백제의 멸망에 앞서 사비성의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집에서 기르던 개가 슬피 울면 집안에 초상이 난다 하여 개를 팔아 버리는 습속이 있다. 또, 개가 이유 없이 땅을 파면 무덤을 파는 암시라 하여 개를 없애고, 집안이 무사하기를 천지신명에게 빌고 근신하면서 불행에 대비한다. 무속신화, 저승설화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환생(還生)하여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 길을 안내해 주는 동물이 하얀 강아지이다. 이처럼 개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로



인식되었다. 옛 그림에서도 개 그림이 많이 나온다. 동양에서는 그림을 문자의 의미로 바꾸어 그리는 경우가 흔하다. 개가 그려진 그림을 보면 나무 아래에 있는 개 그림이 많다. 이암의 화조구자도와 모견도, 김두량의 흑구도 등이 그 예인데, 나무(樹) 아래에 그려진 개는 바로 집을 잘 지켜 도둑막음을 상징한다. 개는 '戌(개 술)이고, 나무는 '樹(나무 수)

이다. '戌'은 '戌(지킬 수)와 글자 모양이 비슷하고, '戌'는 '守(지킬 수)와 음이 같을 뿐만 아니라 '樹'와도 음이 같기 때문에 동일시된다. 즉 "戌戌 樹守"로 도둑맞지 않게 잘 지킨다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은 개의 그림을 그려 붙임으로써 도둑을 막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일종의 주술적 속신(呪術的 俗信)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고구려 각저총의 전실과 현실의 통로 원편 벽면에도 무덤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개 그림을 그려 놓았다.

충복과 비천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

사람들은 주인에게 보은할 줄 알고 영리한 개를 사랑하고 즐겨 기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흔히 천한 것을 비유할 때 개에 빗대어 이야기한다. 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 밖에서 자야하고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을 먹어야 한다. 사람보다는 낮고 천하게 대접받는다. 개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으니 의로운 동물이라는 칭찬과 천하다고 알잡아 취급하는 양면이 있다. 즉, 개에 대한 민속 모형은 충복과 비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출처 _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 소 :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866
주 소 : 서울시 중구 필동1가 21-16
메리트빌딩 3층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November · December 2005 Vol.179

우리 문화 속의 성과 로맨스

“유감동 이야기”

우리 역사를 4백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대담하게 성을 표현한 여성을 만날 수 있다. 유감동. 조선왕조실록을 들춰보면 ‘유감동’이라는 사대부집 여성이 나온다. 이 여성이 나오는 세종 9년 8월 18일의 실록은 마치 신문 사회면 기사와도 같다.

“평강 현감 최증기의 아내 유감동이 남편을 배반하고 스스로 창기라 일컬으면서 서울과 외방에서 멋대로 행동하며 간부(奸夫) 김여달·이승·황지신·전수생·이돈과 여러달 동안 간통했다”.

그러나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대부집 여자가 연루된 간통사건이 그 보다는 그와 상대한 남자의 숫자가 무려 39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 네덜 신분도 사헌부 지평, 공조판서등의 고위관리에서부터 각지의 수령, 남편의 매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이렇게 간통을 벌여 풍속을 문란케한 유감동과 그의 간부들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양반 부녀자와 간통한 남자는 극형으로 다스리는게 상례였으나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파트너 중에는 국가 공신의 아들까지 끼여있어 형량을 결정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

조정에서는 ‘죽이자’와 ‘뺨자’로 의견이 갈리었다. 그러다 결국 남성들이 주름잡던 조정은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감동의 음탕함에 비로워된 사건으로 단정짓고 유감동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는 장형이나 파직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 그 덕분에 유감동에게도 변방의 관비로 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목숨만은 건진다. 이는 유교사회가 무의의치 않은 조선초기의 성풍속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유감동이 관계한 남성의 숫자도 유감동이 유부녀이고 파트너들이 고위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당국’이 발표한 39명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그 두 세배에 이르는 1백여명에 달했을지도 모른다.

‘00부인 바람났네’ ‘애들은 재웠수?’와 같은 3류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15세기 조선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섹스 연쇄 사건이다. 그렇다면 유감동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 한 여성의 사생활에 국한된 문제로 단순한 간통사건이라고 단정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당시 세종 임금과 조정 관료들까지 ‘유감동 간통 사건’의 처리를 놓고 옥신각신했던 것을 보면 이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실임에 틀림없다. 남편을 가진 한 여인이 못 남성과 섹스를 하는 장면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간통일 수도 있으나 당시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는 남존여비의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유감동의 간통사건은 남성위주의 사회와 여성으로서의 삶이 부닥치면서 튀어나온 페미니즘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남편을 제껴두고 자신의 파트너를 찾아 어둠속을 걷어가는 유감동을 보라! 남성들이 여럿 여성들을 거느리고 여성들은 일부종사해야 하는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향해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섹스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성도 자신이 원하는 남자와 섹스를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속으로 외쳐냈을지 모른다.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녀는 우리 여성사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 아니면 ‘페미니즘’을 갈구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mckang999@hanmail.net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866 서울시 중구 필동1가 21-16
메리트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깨끗한 물로 완성된 행운의 네잎클로버!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하나되는 세상...
그 곳에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더 해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